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국제유가 추이 / 3

II.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 6

6	1. 미국
11	2. 중국
15	3. 일본
21	4. 캐나다
24	5. 독일
26	6. 프랑스
30	7. 영국
32	8. 네덜란드
36	9. 체코
38	10. 폴란드
41	11. 헝가리
44	12. 싱가포르
47	13. 태국
50	14. 말레이시아
52	15. 인도네시아
54	16. 베트남
58	17. 인도
61	18. 호주
66	19. 홍콩
71	20. 대만
76	21. 브라질
79	22. 칠레
82	23. 이집트
87	24. 남아공

III. 시사점 / 92

요 약

사상 유례없는 초고유가 현상은 세계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수입부담이 늘어나자, 에너지 수입 안정화를 위해 각국은 자원 보유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강화, 해외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중국, 인도 등 고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 국가들은 다양한 에너지 수입원 확보를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등은 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수십년 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의 초고유가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항공, 자동차 등 기업들은 고유가로 물류비 및 생산비 상승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각국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긴축 소비 트렌드에 따른 수혜업종도 출현하고 있어 위기 속의 기회시장이 열리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을 야기하여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자, 각국은 보조금 지급, 에너지 가격통제 및 조절, 유류세 인하 등 세제 정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

유가급등 및 그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유지하여 국가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 개도국임에도 대체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한 브라질 등은 70년대 이후 관련 프로젝트를 부침없이 추진해 온 사례이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의미있는 시사점이 되고 있다.

I. 국제유가 추이

- 금년 들어서도 국제유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 추세
 - 구조적 여건 악화 및 금융자금의 대거 유입 등으로 국제유가는 당초 전망을 넘어서며 크게 급등 중

〈국제유가 추이〉

(단위 : U\$/배럴)

유종	'06년 평균	'07년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두바이유	61.55	68.34	86.85	127.90
브렌트유	65.06	72.62	92.86	132.67
서부텍사스중질유	66.04	72.21	94.74	133.91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 주요 유종별로 연초 대비 6월말 평균가격이 40% 이상 상승
 - '06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상승
- 국제유가가 최고를 기록하며 급등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생산 및 수급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자자본의 유입이 지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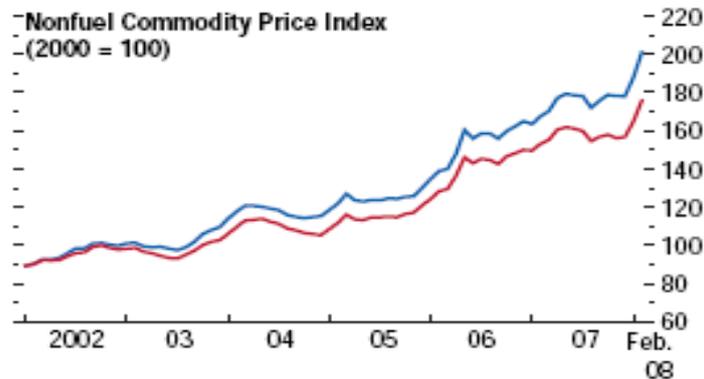
〈국제유가 상승 요인〉

개도국 수요급증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수송용을 중심으로 수요 증대 -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유가 보조금 정책 지속
공급능력 제약	- 시추 및 개발 생산 설비 및 숙련 인력 부족 - 자원 국유화에 따른 산유국 매장량 접근 제한
OPEC 고유가 정책	-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한 목표유가 상향 조정 *OPEC 목표유가 : 60~65달러('07)→80달러이상 추정 (현재)
생산비용 상승	- 개발 생산 한계비용 급증
지정학적 요인	-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 정정 불안
투기자본 유입	- 저금리, 약달러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본 유입

자료원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센터

- 특히, 미국의 금리인하 및 달러 약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투자자금들이 석유시장을 포함한 상품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여타 상품가격도 동반 급등
- 금속, 대두, 옥수수, 밀, 쌀 등의 가격이 '07년 대비 평균 50% 상승

〈국제 상품가격 변동 추이〉



자료원 : WTO

- 국제 원유시장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좁아지자, 각 기관들은 일제히 올해 국제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

〈해외 주요 기관의 2008년 국제유가 전망 변동내역〉

(단위 : \$/B)

기관	기준 유종	전망시점		증감 (B-A)	전망 수정배경	
		'07.12 (A)	'08.6월 (B)			
정부 기관	EIA	WTI	84.83	122.15	37.32	- 산유국들의 잉여생산능력 부족 - 정정불안으로 인한 공급차질
민간 기관	PIRA	WTI	80.35	127.05	46.70	- 달러화 약세에 따른 투자 자금 유입 - 지정학적 불안요인 상존
	CERA	Dubai	70.56	103.47	32.91	- 달러화 약세 및 미 경기침체에 따른 상품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유입
	CGES	Brent	82.40	121.20	38.80	- 낮은 수준의 세계 석유재고 - 투기자금 유입

주)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주)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주)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 향후 유가추이는 미 달러화 기조 및 지정학적 불안요인 해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
 - 미 달러화 약세 현상은 막대한 자금의 국제석유 시장 유입을 유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현상을 왜곡
 - 아울러 산유국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여부는 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 요인 제거 여부가 최우선 요소

□ 한편, 초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위축 조짐

- 국제통화기금(IMF)은 2002년 이후 지속되던 호황이 유가상승 및 금융경색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자원 수입국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2007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양상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2	2.8	3.6	4.9	4.4	5.0	4.9	3.7	3.8

주 : 2008, 2009년은 전망치
 자료원 : IMF

- 서브프라임 사태 등 금융경색으로 미국 등 선진국 경기위축 뚜렷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06	2007	2008	2009
미국	2.9	2.2	0.5	0.6
유로존	2.8	2.6	1.4	1.2
일본	2.4	2.1	1.4	1.5

주 : 2008, 2009년은 전망치
 자료원 : IMF

- 선진국 시장의 내수소비 및 수입수요 감소는 개도국의 수출감소로 이어져 전 세계 경기위축으로 확산될 가능성

II.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미 국

1. 미국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미국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 가격 기준)

구분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S\$/Gallon	2.240	3.056	3.043	4.054
*경유(Diesel)	"	2.485	2.808	3.308	4.677
Natural Gas	US\$/1,000 Cubic feet	6.78	7.60	8.18	11.46
전기(가정용)	Cents/Killowats	10.20	11.10	10.25	11.60

주 : * Tax 포함,

자료원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나.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

구분	단위	2006	2007	2008
원유	생산	5.10	5.10	5.14
	소비	20.69	20.70	20.29
	자급율 %	24.6	24.6	25.3
천연 가스	생산	50.62	52.82	56.21
	소비	59.32	63.16	64.48
	자급율%	85.3	83.6	87.2
석탄	생산	1,163	1,146	1,179
	소비	1,112	1,129	1,137
	자급율 %	104.6	101.5	103.7

자료원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 유가상승에 따른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대체 발전(원자력 등) 건설 확대
 - 미국정부는 현재 풍력,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비중을 오는 2020년까지 15%로 확대하는 법안(HR 3221 Act)을 추진 중
 - 현재 하원을 통과, 상원 심의단계에 있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연간 약 130~10억달러의 전기료 및 천연가스 비용 절감 및 1,500~2,000만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 확대 추진
 - 부시행정부, 미 의회에 대륙붕 개발탐사 금지법안 철폐 요구
 - 미의회는 1980년대 초 기술적 취약성, 환경오염, 미래를 대비한 전략원유 채굴 연기 등의 이유로 미 연안 대륙붕(OCS, Outer Continental Shelf)내 원유 탐사, 채굴을 금지
 - 미 행정부는 미 대륙붕에 대한 원유 및 가스개발이 허용될 경우 180억 배럴 이상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절약 관련 신규조치 도입
 - 미 연방기관들은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30% 감축하도록 규정
 - IT설비의 전력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절전 등 친환경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냉방온도 제한, 차량통행 제한 등 전국적인 정책 도입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고유가로 인한 예산지출 증가를 방지키 위해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도입하고는 있으나 아직 전국화된 현상은 아님.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의 변화

-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0.6%) 이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9% 기록
 - 소비지출은 고용사정 악화, 주택시장 침체, 신용경색 등으로 더욱 둔화 ('07년 4분기 2.3% → '08년 1분기 1.0%)
 - 주택투자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25.2% → -25.5%)하고 기업투자도 마이너스로 반전 (6.0% → -0.2%)
- 반면, 미 달러화 약세로 인한 수출의 호조, 원유 수입물량 감소 등에 힘입어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높아지고 있음.
- 지역경제도 2000년대 들어 최악으로 평가
 -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이 6.8%로 5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
 - 4~5월간 약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이들 대부분이 주택 및 부동산 산업관련임.
- 미 경제 2009년 하반기 이후에야 회복세 전환 전망
 - FRB, IMF, 월가 등에서는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 추가하락과 고유가 등이 복합된 미국의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나. 기업의 변화

- 美 자동차시장, 고유가 속 에너지 절약모델 독보적 인기
 - 5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11% 하락한 가운데 특히 SUV, 트럭은 최소 21% 감소
 - 미 소비자들의 자동차 소비패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높은 모델로 이동
 - 대형 SUV에서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로 소비 이동
 - 소형차 수요 증가
 -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 한편, 미국 소비자의 소형차 및 연비 우수 차량에 대한 선호도 증가에 따라 현대, 기아차 등 한국산 차량의 미 시장 점유율 크게 확대
 - * '08년 6월중 현대자동차는 미 자동차시장 점유율 4%, 기아차는 2%를 돌파함으로써 사상 최초로 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
- 신규 항공기 수요 감소
 - 유가 상승으로 항공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제작 주문이 최대 1/3까지 감소할 가능성
 - 일부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항공기 산업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
- 치솟는 물류비에 美 제조업체들 다시 미국으로 U턴
 - 40ft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지역으로의 해상 물류비는 2000년 이후 이미 세 배가량 상승
 -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향해감에 따라 앞으로 두 배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미국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Emerson사는 작년부터 물류비가 회사경영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게 되어 올해는 해외 공장을 철수시키고 제품이 판매되는 곳에서 최대한으로 가까운 곳으로 생산기지 이전
 - * 캐나다의 한 조사기관(CIBC World Markets)은 현재 물류비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물품에 9%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며, 운송거리가 10% 늘어날 때마다 에너지 비용은 4.5%씩 증가한다고 분석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중국의 대미 수출 '08년 1~4월 3.1% 증가에 그쳐
 - 완구, 가구, 신발, 의류 등 경공업 제품 수출 감소 기록
 -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기계도 5.8% 증가에 그침.
-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수출은 0.4% 증가
 - 일본(3.5%), 대만(0.6%)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대미수출 부진

- 반면, 사우디(86.9%), 베네주엘라(42.1%), 나이지리아(55.1%) 등 원유수출국들의 대미 수출은 급증

4. 시사점

- 고유가가 한국의 대미수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아님.
 - 구매력 감소, 수입수요 위축 등으로 시장여건은 전반적으로 불리
 - 그러나 고유가로 인한 미국 소비계층의 수요패턴 변화로 한국산 자동차 선호도 증가 등 업종별, 산업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 꾸준한 정책시행, 넓고 튼튼한 저변
 - 대체에너지 개발 등은 의회 및 행정부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 중
 - 아울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조 등으로 넓고 튼튼한 저변 확보

중 국

1. 중국 에너지 시장현황

가. 2008년 중국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소비자 가격기준)

○ 중국은 '05~'08년간 10회에 걸쳐 유가를 조정했으며 대부분 모두 가격 인상

〈2007~2008년 베이징시¹⁾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93호)	U\$/ℓ	0.6290	0.6419 (+0.0129)	0.7368 (+0.0949)	0.9039 (+0.1671)
경유(0호)	U\$/ℓ	0.6200	0.6328 (+0.0128)	0.7299 (+0.0971)	0.9083 (+0.1784)
LPG(민용)	U\$/병(15kg)	5.1349	5.2404 (+0.1055)	5.5189 (+0.2785)	5.8317 (+0.3128)
전기(가정용)	U\$/kwh	0.0627	0.0640 (+0.0013)	0.0674 (+0.0034)	0.0712 (+0.0038)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 7.7898위안, '07.6월 : 7.6330위안, '08.1월 : 7.2478위안, '08.6월 : 6.8591위안)

자료원 :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시나닷컴, 무역관 실사 등 종합

나.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18665.7만톤, 휘발유, 경유, 파라핀유 등 3개 품목을 합한 생산량은 1.95억톤

- 원유 수입량은 1.631억톤으로, 원유 수입의존도는 47.1%이며, 이는 '06년의 45%에 비해 2.1%p 증가한 것임.

○ 중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693.1억m³, 수입량은 291.3만톤으로 수입의존도는 41.7%

1) 중국은 지역별로 유류품 가격이 다르므로, 이번 조사는 베이징 시내를 위주로 함.

2. 유가상승에 따른 중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측면

- ‘재생가능에너지발전관련관리규정’(可再生能源發電有關管理規定) (‘06)
 - 주요 하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설비용량 25만kw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5만kw이상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허가한다고 규정
 - 전력망회사에 대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발전 프로젝트건설 진도와 수요에 따라 전력망건설과 개조를 진행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액수매를 확보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은 크게 발전, 메탄가스, 열공급과 연료 등 4개 분야로 구분되며 발전에는 수력 및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발전 등이 포함
 - 2010년까지 중국의 생물학 연료, 바이오 메탄올, 바이오 디젤 이용규모를 각각 100만톤, 300만톤과 20만톤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의 자원협력 프로젝트에 운영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율을 중앙은행 이자율보다 낮게 제공하는 제도가 있음.
 - 국가개발은행
 - 석유, 천연가스 금속·비금속 등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철도, 도로, 주택 등) 지원
 - 기업의 아프리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외환, 정책성자금, 세수혜택, 정책성 보험 등을 지원
 - 이외에도 해외 자원개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외광산자원탐사개발전문자금’ 조성
 - 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 대출자금을 해외자원 개발 등에 우선 적용
 - 자원개발 해외투자과 대외 경제합작 프로젝트의 초기비용 지원(재정부, 상무부)
 - 개도국에서 실시되는 중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로 석유천연가스, 금속과 비금속광 개발 프로젝트 등이 주요 대상

나. 사회적 측면

- 중점에너지사용기관의 에너지이용상황 보고 제도 실시 ('08.6월)
 - 중점 에너지 사용기관은 매년 에너지절약관리부서에 전년도 에너지 이용상황, 이용효율, 에너지절감 목표 등을 제출
-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철도여객운송, 도시공공교통, 농촌도로여객운송, 택시, 액화가스, 천연가스 등 가격을 잠정적으로 동결
 - 식량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종면적에 따라 무(畝)당 5위안을 보조하고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보조금 확대 방침
 - 7월부터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조비를 1인당 15위안/월으로 조정하고 농촌 최저생계비를 1인당 10위안/월으로 상향조정
- 공공건물 실내온도 통제관리 ('08.7.1일부 시행)
 - 공공건물의 여름철 실내온도는 최저 26℃, 겨울철 실내온도는 최고 20℃로 한정
- 민간 건물 난방계량관리 시행 ('08.6.10)
 - 열계량 관리를 통해 에너지효율 개선 목적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유류제품 가격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국민이 느끼는 변화폭은 국제유가 변동폭 만큼 크지 않음.
 - 그러나 최근 중국내 유가인상 조치로 자동차 구매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가운전보다는 카풀이나 공공교통 이용자가 늘고 있음
 - * 예년의 경우 4~5월이 자동차판매 성수기이나 올해 4월은 3월에 비해 자동차 판매액이 12.9%나 줄었고 5월도 4월에 비해 6.66% 감소

- 또한 에너지소모가 적은 소형차를 선호하는 대신 연비가 높은 SUV 구매가 크게 감소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 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덜 받고 있음.
- 그러나, 올해 중국은 위안화절상, 연이은 자연재해,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07년 11.9%에 비해 낮은 9.5~10%대의 경제성장률을 예상

나. 기업의 변화

- 동펑닛산은 소형차 출시를 늘리고 향후 5년간 공장출하 차량가격을 10만 위안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계획 중
- 이 외에 장후이루이핑, 이치따중은 디젤차량 출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하이기차는 신에너지차량 개발 추진
- 우리나라 현지 투자기업들의 원가상승 부담 크게 증가
- 올해 들어 위안화절상, 원부자재 가격인상과 더불어 최근의 유가인상이 우리 기업의 3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며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4. 시사점

- 중국정부가 국내유가 안정화 조치로 시행하는 유류제품 수입관세 선징수, 후환급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눈여겨 볼만함.
- 유가인상에 따른 민생지원책도 중요하나 유가자체를 안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관세조정 등을 고려해 볼만함.

일 본

1. 일본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일본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엔/ℓ	133	139	154	173
경유	엔/ℓ	113	118	133	153
LPG	엔/5m ³	4,112	4,125	4,325	4,459
전기(가정용)	기본요금	1,092	1,092	1,092	1,092

주 : 1. 엔-달러당 평균환율('07.1월:120.37, '07.6월:122.63 '08.1월:107.98 '08.6월:106.89)
 2. LPG가격은 '07년 2월, 6월, 12월, 08년 4월가격임, 전기요금 40A계약 기본요금
 자료원 : 석유정보센터, 도쿄전력

나. 에너지 자급률

- '05년 일본의 에너지 자급율은 4%이며 준 국산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까지 포함하면 18%임.

2. 유가상승에 따른 일본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신국가에너지전략 ('06)
 - ① 에너지절약목표 : 2030년까지 30%의 효율개선
 - ② 원자력발전목표 : 2030년이후에도 발전전력량중 원자력발전비율을 30~40%정도 이상으로 함
 - ③ 운수부문의 석유 의존도 저감 목표 : 2030년까지 80%로
 - ④ 해외에서의 자원개발목표 : 2030년까지 40%
 - ⑤ 석유 의존도 저감목표 : 2030년까지 40%이하로

나. 에너지절약 노력

- '70년대 2차례 석유쇼크를 계기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노력을 한 결과 과거 약 30년간 에너지소비효율을 37%개선하여,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음
 - 일본정부는 에너지절약 노력을 한층 가속시켜 2030년까지는 적어도 30%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개선시킨다는 목표 설정
 - 톱러너(top runner)제도 : 에어컨, TV, 조명기기, 냉장고, 컴퓨터, 자동차, 스토브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목표 달성 유도
 - 에너지절약 라벨제도 : 가전제품 등에 국가에서 정한 에너지절약기준(목표치)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라벨에 표시

〈일본의 에너지절약 라벨〉



- 원자력 발전비율을 30-40%로 유지
 - 현재 5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행중이며, 발전설비용량은 4,958만KW에 이르고 있음
- 차세대 운송에너지 개발
 - 연료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등 차세대 자동차의 실용화 및 보급으로 운수 부문의 연료를 전력, 수소 등으로 다양화
- 해외자원개발 강화
 - 일본의 원유공급은 100%해외에서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86.7%가 중동으로 편중된 공급구조임. 이에 따라 캐나다, 남미 및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로 원유공급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

- 일본기업은 정보부족 및 네트워크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구미기업과 제휴를 통해 진출한다거나, 일본의 타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아프리카 유전개발권을 획득하려는 움직임
 - 일본정부는 아프리카와의 네트워크강화 및 일본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쉬운 환경조성 등에 노력. 이를 위해 아프리카방문 정상외교의 정례화하여 아프리카와 일본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거나 일본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등 노력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 현재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점하는 대체에너지의 비율(수력, 지열제외)은 2.0%로 2010년까지는 3.0%까지 향상시키며, 석유의존도 목표를 2030년까지 40%이하로 한다는 목표하에 태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수력등에서 생성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일본의 대체에너지 발전〉

구 분	2005년도	2010년도 목표
태양열 발전	34.7만kl(142.2만kw)	118만kl(482kw)
풍력발전	44.1만kl(107.9만kw)	134만kl(300만kw)
폐기물·바이오매스발전	252만kl(201만kw)	586만kl(450만kw)

자료 : 자원에너지청

나. 사회적 측면

- 냉방온도 제한
 - 경제산업성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최저 28℃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기관 건물이 동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민간기업도 다수
- 기업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
 - 고속도로 요금 인하 : 심야(0~4시)할인 요금을 비율을 현재 30%에서 0%로 확대 했으며 이를 위해 235억엔의 정부예산을 편성

- 국토교통성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 도입"을 촉진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유류할증료도입 위한 가이드라인을 금년중 확정하기로 함.
- 저소득층 지원
 -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해 29억엔의 예산을 편성
 - 고령자세대, 장애인세대, 모자가정의 주민세 비과세대상에 대해 1세대당 5,000~10,000엔정도의 등유구입비를 지원
 - 빈곤의 정도에 따라 난방비 추가 지원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일본 경제성장의 변화

- 원유가 상승은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을 0.64% 하락시키고, 가처분소득을 1.29%감소시켜 소비, 수입, 민간투자, 수출 등 경제전체가 위축될 것이며 수입물가가 6.58%상승하여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행은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2.1%(07.10월전망)에서 1.5%(08.4월전망)로 하향수정
 - 日本總合연구소등 10개 민간경제연구소도 2008년 실질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1.56%로 하향수정
 - * 예측치 : 1.6%~2.5%, 평균 2.1%(07.11)→ 0.8%~2.0%, 평균 1.56%(08.2)
- 일본은행이 7월 1일 발표한 6월기업 단기경제관측조사(단관)에서도 원유가 상승과 판매부진이 기업심리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유가상승등 원재료 상승이 지속될 경우 경기를 침체시키는 리스크도 부각될 것이므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후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견해도 부상

나. 기업의 변화

- 유류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
 - 일본통운의 유류할증제 도입 : 화주의 부담 약 3%증가 예상
-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개발 강화
 - 가전제품 및 OA기기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주택·건축물의 단열화 추진 등
 -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지속적인 자동차연비 개선을 통해 10년 전에 비해 약 28%의 연비향상을 달성
 -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트럭운송에서 철도 및 해운운송 등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운송기관 활용 촉진
- NEC 재택근무로 에너지 절약 효과도 기대
 - 재택근무는 NEC의 원격근무시스템(신크라이언트)을 이용하며 주1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소비 전력을 최대 62%, 연간 최대 56톤의 CO2 삭감 효과가 있으며, 출퇴근시 소요되는 연료대응 비용절감 효과

다. 수입시장의 변화

- '08년 1~5월 일본의 수입은 전년비 25.2%가 증가한 약 3,600억달러 기록
 -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UAE, 인도네시아에서의 원자재수입이 급증한데 기인

4. 시사점

- 에너지자원을 외부에 의존하는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고효율 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세계최고의 에너지 효율 국가로 자리잡음.
 - 한국 제조업 에너지 소비 (일본=100) : 철강 105, 화학 102, 시멘트 131
- 에너지효율 개선기술 개발은 장기적인 전략과 비전 필요

- 향후 현재의 원유가 상승이 일단락되어 관련 기술개발 및 대체에너지 개발분야 식는다면 기술진보는 어렵고 탈석유의 산업구조 달성 곤란
- 기업입장에서도 유가 및 원자재상승에 의한 경영압박의 요인을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내부에서 먼저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

일본의 트럭업계는 일본정부가 유류할증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운송비 인상을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주저하는 업체들이 많음.
비용인상의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 화주가 비용인상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며, 트럭사업자가 너무 많아 과당 경쟁상황이기 때문임.
따라서, 내부적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증가분을 흡수하거나, 심야 고속도로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음.

캐나다

1. 캐나다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캐나다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구분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 C/ℓ	0.86	1.06	1.06	1.38
경유	\$ C/ℓ	0.95	0.97	1.12	1.45
LPG	\$ C/ℓ	0.61	0.62	0.72	0.73
전기(가정용)	\$ C/kWh	0.046	0.048	0.05	0.05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 환율

('07. 1월: C\$ 1.176 , '07. 6월: C\$ 1.065 '08. 1월: C\$ 1.011 , '08. 6월: C\$ 1.017)

자료원 : Natural Resource Canada, 캐나다 중앙은행

나. 캐나다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캐나다는 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에너지 수출국
 - 에너지 총 생산량 : 18,360 petajoules
 - 에너지 총 소비량 : 10,976 petajoules

2. 유가상승에 따른 캐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Mackenzie Gas Project를 통한 공급확장
 - 약 7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해 캐나다 북부의 Inuvik지역에서 Alberta주 북부까지를 연결하는 약 1220km 길이의 천연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을 2012년 까지 신설할 계획

○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

-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확장계획. 풍력 발전량을 2015년 까지 11400 MWh로 확장.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폐열, 태양열, 조열에 기술투자를 통한 에너지 공급.
- Canadian Triple E energy path : 친환경 도시계획, 에너지 절감 규정 계획, 에너지 절약 관련 장려금 계획, R&D 투자 계획

나. 사회적 측면

○ 연방정부의 ecoACTION 프로그램 ('07.4.1일 시행)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시설 업그레이드 시 5000 캐나다 달러의 금융지원

○ Energy Star 인증

-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및 난방제품에 대한 국제인증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캐나다 경제성장의 변화

○ 물가상승과 금융시장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 '07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2.7% : 농작물과 에너지 수출 증가와 유가상승이 2007년 국내총생산(GDP) 상승 주도

○ '08년 상반기에는 경제성장 위축 및 물가상승

- 1분기 -0.1% 경제성장률 기록
- GM의 캐나다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부문의 약세와 상품제조 부문 생산량 1.5% 하락이 원인

나. 기업의 변화

- GM의 캐나다 공장 폐쇄 결정이후 7월 3일 온타리오 내 11개 자동차 부품 공장의 법정관리 결정, 2,000명의 노동자 해고
- 50%의 캐나다 기업들이 소매가격 인상 계획 → 물가상승 우려
- 물류비 상승
 - Canada Post는 지난 6월 배달수수료를 8.25%~9% 인상
 - 해상운송 비용은 2000년에 비해 3배 상승하였으며, 유가가 배럴당 U\$200대로 오르면 지금보다 두 배로 오른다고 예측
- 우리기업 현지진출 여건 악화
 - 15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은 미국 자동차시장 여건이 캐나다 자동차부품 시장에도 영향
 - 2009년 설립완공 예정인 한화그룹 자동차부품 공장 경영여건 악화 우려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유가상승과 캐나다달러의 강세로 대미수입 증가
 - '08년 1~4월 간 대미수입은 약 12.6% 증가한 반면, 대한수입은 26% 하락

4. 시사점

- 캐나다는 수년 전부터 연방정부, 주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실시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에너지 낭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에너지 절약이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임.

독 일

1. 독일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독일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유로/ℓ	1.214	1.358	1.372	1.527*
경유	유로/ℓ	1.083	1.149	1.263	1.494*
LPG	유로/ℓ	0.617	0.64	0.65	0.639
전기(가정용)	유로/Kwh	0.1985	0.20525	0.20975	0.2175

주 : 1.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 환율

('07.1월:1:1.2999, '07.6월:1:1.3419, '08.1월:1:1.4718, '08.6월:1:1.5508)

2. *는 예상치

자료원 : 석유경제연합, 유럽중앙은행 외환시세 통계 2008

나. 독일의 에너지 자급률

- 3%의 국내 원유 조달을 제외하면 모두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독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지속 상승 중이며, 우라늄을 제외한 수입의존도는 62%에 이릅니다.
 - 이 중 석유는 97%, 가스는 83%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유가상승에 따른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독일은 바이오매스, 태양,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 독일기업의 환경기술 분야 매출은 2020년까지 매년 5.4% 증가 전망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독일 경제가 세계 경기침체와 고유가 등으로 타격을 받게 될 전망
 - 향후 투자감소, 수출위축, 소비감소 등 예상

나. 기업의 변화

- 최근 에너지 절감제품 판매 증가
 - 센서부착 에너지 절약용 전구,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에너지 측정기, 태양광을 이용한 자전거, 컴퓨터 및 배터리 충전기 등 에너지 절감형 제품 판매 증가

다. 수입시장의 변화

- 독일은 수출 호황에 따라 고유가의 영향을 덜 받고 있으며, 수입규모나 수입 대상국 및 패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4. 시사점

- 오래전부터 태양열, 풍력, 바이오 디젤 등 대체에너지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결과, 대체에너지 공급에 매우 유리한 입장
- 아울러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육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특별한 대책마련이나 캠페인 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음.

프랑스

1. 프랑스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프랑스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유로/ℓ	1.189	1.343	1.368	1.488
경유	유로/ℓ	1.026	1.100	1.214	1.438
LPG	유로/ℓ	0.683	0.682	0.735	0.741
전기(가정용)	유로/kWh	0.1073	0.1073	0.1085	0.1085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1:1.2999, '07.6월:1:1.3419, '08.1월:1:1.4718, '08.6월:1:1.5508)

자료원 : 프랑스 정부 웹사이트(www.prix-carburants.gouv.fr), 프랑스 석유산업 연합회 1,805개 온라인 LPG 주유소 웹사이트(www.station.gpl.online.fr), 프랑스 전력공사(EDF).

나.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

- 프랑스의 에너지 자급률은 50%
 - 현재 58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0%는 수출하고 나머지 약 90%는 내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 부문에서의 자급률은 높으나, 전체 에너지 면에서는 동 자급률이 41%에 불과함.
 - 반면, '06년 대체에너지 생산규모는 1700만 TEP으로 자급률 6.17%를 기록함.
 - 천연가스는 2%, 석유는 3%의 자급률을 각각 기록

2. 유가상승에 따른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를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EU 지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전지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
 - 미래형 핵융합 원자력발전소(EPR) 건설을 확대 계획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지원
 - 감세 한도를 재생 에너지 및 열펌프 생산 설비 투자비의 40%에서 50%로, 콘덴서식 보일러(보일러 온도 자동조절기 포함) 및 단열재(이중창 포함) 투자비의 25%에서 40%로 상향
- 에너지 절약형 자동차 구매 우대
 - 주행거리 1km당 탄소분출량 130g 미만인 차량에 보너스 지급
 - 저연비 승용차에 구매 억제(1km 주행거리당 탄소 분출량 106g 이상인 승용차에 탄소 분담금 차등 부과 중)
- 고유가 타격이 심한 어업 및 운송업에 대한 지원 대책
 - 농업 : 에너지 절약 연구지원, 에너지 비용 감세정책
 - 어업 : 3개년 3억1천만 유로 지원계획을 2년으로 단축
 - 운송업 : 유류세 조기환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등
- 빈곤층 지원책
 - 2007년 말부터 지급되는 연료보조금(150유로) 상향조정 검토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성장률 둔화
 - 프랑스 정부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경제성장 목표(1.7%-2%)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임.
 - 프랑스 경제통계 연구소(INSEE)는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당초 전망치보다 낮은 1.6% 성장률, 1분기 GDP성장률을 0.6%에서 0.5%로 수정 발표함.

나. 기업의 변화

- 에너지 절감형 제품 개발
 - PSA 자동차 제조사는 신호대기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다시 걸리는 전자 장치가 내장된 제품 출시 (연료 소모량을 15% 감소)
- 재활용 에너지 보급
 - 폐식용유를 활용한 디젤 승용차 및 농기계용 바이오 연료 개발

다. 수입시장의 변화

- 2008년 5월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수입이 급증한 품목은 에너지 및 바이오연료 관련 제품이며, 원유 및 천연가스, 석유 정제품, 석탄의 경우는 수입물량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수입단가가 높아져 수입금액이 증가

4. 시사점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산업육성 및 소비 감소 억제 등의 다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대책 도입
 -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탄소 분담금 및 보너스 제도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감세폭 증가로 이중창, 단열재, 열펌프, 콘덴서식 보일러, 태양광 전지판 등의 수요가 급증, 관련 산업 육성 및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얻고 있음.
- 운송업, 농어업 등 분야에 감세 및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EU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를 부단히 추진하는 등 자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도를 높여 경제 및 사회 개혁 정책을 큰 반대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음.
- 태양광 전지, 원자력 등 꾸준한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반영하여 가격을 정하는 국영 전력공사(EDF)와 민간 공급업자들 간 자율경쟁체제를 활용하여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의 안정화 유도

영국

1. 영국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영국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pence/ℓ	86.9	96.4	103.7	117.7
경유	pence/ℓ	91.4	97.1	108.7	130.7
LPG	pence/ℓ	34.1	38.9	51.1	67.5
전기(가정용)	pence/kw	8.73	8.59	10.28	11.29

주 : 1.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1 GBP=1.95867 USD, '07.6월: 1 GBP=1.98673 USD

'08.1월: 1 GBP=1.9701 USD, '08.6월: 1 GBP=1.96645 USD)

2. 1 GBP= 100 pence

자료원 : BERR, 통계청, www.x-rate.com , <http://www.petrolprices.com/>

2. 유가상승에 따른 영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 풍력발전 : 향후 12년 동안 총 1200억달러를 투자하여 풍력터빈 시설 건설에 들어가며 이 시설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총 2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 영국전역 총 171개 지 1,972개의 풍력발전 터빈이 가동되어 2,43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여 140만 가구에 공급되고 있으며 연간 55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영국의 경우 BP및 로얄더치셸 등 세계 최대 메이저 회사들이 자체적인 자금, 정보, 기술력 구비를 통해 자원확보전략 주도

- 대표적으로 BP는 해외 석유 채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이집트, 중남미, 중동지역의 유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부동산 경기침체, 고유가로 인한 제조 및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악재로 소매경기 위축
- 영국 상공회의소는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 및 생산/소비력의 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영국경제는 다음 분기부터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표.

나. 기업의 변화

- 절전형 전구 및 가전기구 구매 수요 증가 및 관련 제품 판매 기업 확대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유가인상, 이자율 상승 및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가처분 소득 감소 → 수입수요 감소

4. 시사점

- 중장기적인 경제정책 하에서 유가상승 및 환율정책을 추진

네덜란드

1. 네덜란드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네덜란드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유로/L	1.40	1.42	1.55	1.68
경유	유로/L	1.18	1.25	1.30	1.44
LPG	유로/L	0.60	0.62	0.65	0.70
전기(가정용)	유로/kwh	0.18	0.19	0.21	0.22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1:1.2999, '07.6월:1:1.3419, '08.1월:1:1.4718, '08.6월:1:1.5508)

자료원 : CBS

나.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네덜란드의 에너지 자급률 : 30%
 - 전체 에너지 수급에서 각 분야별 에너지 비중
 - 석유/가스: 60%, 석탄: 30%, 원자력: 4%, 재생에너지: 5%, 기타: 1%

2. 유가상승에 따른 네덜란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대체 발전(원자력 등) 건설 확대 등을 위해 2010년까지 총 70억유로를 투입하는 에너지 정책 마련
 -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
 - 현재 총 전력생산의 5%미만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 8.5%, 2020년까지 17%까지 확대 목표

-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2030년 완공목표하 북해연안에 8,000개의 풍력기 설치계획 발표
-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연간 예산 1억유로를 편성, EU 프로그램인 "Alternet Programme" 및 "Joule Programme", "Themie Programme"와 연계정책 시행중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조금제도(MEP), 신재생에너지 시설 및 에너지 효율기기 설치 투자시 전체투자금액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급촉진 보조금제도(ENIP),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기술 투자개발시 최대 19%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제감면제도(EIA) 등 운영 중
- 원자력발전소 건설
 - 현재 전체 전력의 4% 수급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건립 추진
- 인터내셔널 가스 허브(Gasrotonde) 구축
 - 네덜란드를 가스 관련 운송, 저장, 무역, 금융에 이르기까지 산업전반에 걸친 국제적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가스생산자 등 유치 중점노력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원유 및 가스 생산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알제리, 중동국가들과의 상호교류 확대할 예정
 - 기업 차원 : 네덜란드-영국 합작 세계적인 유류기업인 Shell의 경우 Chevron Canada사 및 Western Oil사와 공동으로 대규모 캐나다 유전발굴 프로젝트에 참여기로 결정
 - 기존 중동지역에서의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카자흐스탄, 슬로바키아 등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음.

나. 사회적 측면

- 자동차세 차등 할인세율 적용 및 CO2배출량에 따른 도로세 차등 적용 조치

〈네덜란드 자동차 에너지 등급세율〉

에너지 등급	2007년	2008년 변경세율	등급기준
A	1,000유류 할인	1,400유로 인하	20% 이상 절감/ 평균대비
B	500유로 할인	700유로 인하	10~20% 절감/ 평균대비
C	-	-	0~10% 절감/ 평균대비
C	135유로 추정	400유로 추정	0~10% 증가/ 평균대비
E	270유로 추정	800유로 추정	10~20% 증가/ 평균대비
F	405유로 추정	1,200유로 추정	20~30% 증가/ 평균대비
G	540유로 추정	1,600유로 추정	30% 이상 증가/ 평균대비

- 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계, 소비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활동 확대
 - * Nuon사, TV 광고를 통한 그린에너지 구매 확대 전략 집중
 - * Eneco사, 그린에너지 구매 홍보를 위해 그린에너지 전문전력공급기업과 협력
그린에너지 공급에 역점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경제는 성장세 지속
 - 유가상승과 더불어 네덜란드의 정유기업, 화학기업들의 매출액 급상승, 수출산업 호황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6월 물가의 경우 지난해 동기 대비 2.6% 상승, 고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류의 경우 12%의 인상율을 보여 전체 물가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나. 기업의 변화

- 에너지 절감제품 우선 구매
 - 회계컨설팅기업인 PWC는 금년 5월부터 직원제공용 차량을 하이브리드로 교체기로 결정

-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 유가급등은 네덜란드에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기업운영 및 수출확대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급증되고 있는 유가로 인해 원부자재, 운송/물류비가 크게 인상되고 있으며 인상분을 수출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바이어들의 수입선 전환 우려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 LG전자를 포함한 현지진출 우리기업들 대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예산절감을 골자로 하는 비상경영체제로 돌입, 수출 및 수익제고에 역점을 기울일 계획임.

다. 수입시장의 변화

- EU 역내 구매 확대 예상
 - 고유가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운송 및 물류비용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공급선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
 - 특히 네덜란드를 포함한 EU 주요국들이 동구권으로부터의 교역을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가 인상으로 인해 수입시장의 역내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시사점

- 에너지절약과 관련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기업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신기술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 더욱이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큰 경쟁력이라 볼 수 있음. 더욱이 소비자들 역시 초고유가시대에 접어들어 에너지절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체 코

1. 체코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체코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CZK/ℓ	27.20	30.55	31.08	32.87
경유	CZK/ℓ	27.27	28.50	31.62	35.25
LPG	CZK/ℓ	14.27	13.75	16.13	16.37
전기(가정용)	CZK/MWh	2,332	2,385	2,570	n/a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21.74 CZK, 07.6월: 21.23 CZK, 08.1월: 17.53 CZK, 08.6월: 15.24 CZK)

자료원 : 체코 통계청(www.czso.cz)

나. 체코 에너지 자급률 (2007년 말 기준)

- 체코 내 발전설비 에너지 사용비율은 석탄(61%), 원자력 (21.3%), 가스(4.7%), 수력(12.6%), 풍력(0.4%)임.
- 매년 생산된 에너지의 약 25%가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의 인근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체코 주요 에너지의 자급율은 석탄(주로 갈탄)의 경우 100%, 석유 4%, 천연가스 1%임.
- 석유의 경우, 주요 수입국가는 러시아(64.57%), 아제르바이잔(27.44%), 카자흐스탄 (4.40%), 알제리(2.68%), 리비아(0.92%) 등임.

2. 유가상승에 따른 체코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최근 유가상승의 영향보다는 EU가입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해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사용량을 20% 증가시킬 예정임.

- 최근 에너지 자급을 위해 미래의 에너지원은 원자력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수입원은 러시아이지만, 핵연료의 경우 캐나다 등 서구이기 때문에 원료 수입원의 다각화가 가능
- 체코 국민들의 약 60%가 원자력 개발 정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체코의 2008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5.3%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원인으로는 물가상승 및 민간소비 감소 등이 거론
-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유가 상승보다는 올해초 인상된 부가세(식료품, 서비스 등 5%에서 9%로 상승)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또한, 체코의 EU 가입이후 수출호조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서유럽의 경기 침체로 체코의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임.

4. 시사점

- 에너지 비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음
- 원자력에너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조사에 의하면 체코 국민 약 70% 이상이 최근의 유가상승과 관계없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국민인식의 전환도 필요

폴란드

1. 폴란드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폴란드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S\$/ℓ	1.2266	1.5934	1.7646	2.0650
경유	US\$/ℓ	N/A	1.3219	N/A	2.1526
LPG	US\$/m ³	0.6669	0.7112	0.9373	1.0094
전기(가정용)	US/kWh	0.1508	0.1584	0.1874	0.2304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2.9837, '07.6월: 2.8399, '08.1월: 2.4537, '08.6월: 2.1694)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 중앙은행

나.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구 분	2007년	106	구 분	2007년	106
HIGH-METHANE NATURAL GAS	14,3%		DIESEL OIL	79,2%	
- PRODUCTION	1838,11	m3	- PRODUCTION	7516,52	t
- CONSUMPTION	12886,24	m3	- CONSUMPTION	9490,27	t
NITRIFIED NATURAL GAS	135,6%		LIGHT FUEL OIL	91,0%	
- PRODUCTION	3493,99	m3	- PRODUCTION	1308,4	t
- CONSUMPTION	2576,08	m3	- CONSUMPTION	1438,2	t
COKE OVEN GAS	100,0%		HEAVY FUEL OIL	138,6%	
- PRODUCTION	4354,79	m3	- PRODUCTION	3578,65	t
- CONSUMPTION	4354,79	m3	- CONSUMPTION	2582,52	t
CRUDE OIL	3,6%		FUEL OIL	121,5%	
- PRODUCTION	715	t	- PRODUCTION	4887,05	t
- CONSUMPTION	20028,47	t	- CONSUMPTION	4020,72	t
MOTOR GASOLINE	96,7%		LIQUEIFIED PETROLEUM GAS	11,5%	
- PRODUCTION	3963,7	t	- PRODUCTION	271,2	t
- CONSUMPTION	4097,92	t	- CONSUMPTION	2353	t

2. 유가상승에 따른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석탄의존도가 60%로 유가상승에 따른 파급영향은 미미
 - 전기에너지 발전(發電) 형태는 90%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며 수력발전(6%), 풍력 등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1.5%), 기타(2.5%)로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 비중이 높음.
- 폴란드 정부는 유가상승 때문이 아니라 EU가입에 따른 대체에너지 의무비율(2020년까지 20%)을 충족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나 결과는 미흡한 편임.
- 아울러 폴란드에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나 폴란드내 전기수요급증으로 인한 저렴한 발전비용, CO₂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원전건설을 추진 중임(2021년 상업발전 계획)
- 적극적인 해외 에너지원 확보
 - 폴란드는 국내 및 인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뿐만 아니라 가나, 앙골라, 가봉 등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도 활발히 오일 탐사 및 시추작업을 진행 중임.
 - 최근에는 이집트, 알제, 우즈베키스탄 탐사권을 획득함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절약 정책을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 이라는 모토 하에 캠페인 전개
 - 정책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 의무화
 - 전력 측정기의 개별화 추진(일부 오래된 아파트에 아직도 공동 전력 측정기 사용, 공동 분할하여 전기요금을 내는 시스템이 잔존-에너지 절약을 위해 개선 필요)
 -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에 2007-2013년까지 정책적 지원(지원예산금 4억4000만 유로)

- 공공 물자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환권장
- 온도 조절 가능한 중앙난방 시스템 권장
- 가정 및 사무실 등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 등을 교육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2008년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6.6%에 비해 조금 낮은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문가들은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아진 원인을 유가상승보다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유로화의 달러화에 대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현지화의 대유로화 강세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가상승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나. 기업의 변화

- 폴란드 경영자연맹(KPP)은 최근의 유가상승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히면서 정부의 유류 및 가스 세금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비판하고 있음
- 특히 디젤유 가격상승은 기업의 즉각적인 물류비용 인상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냄

4. 시사점

- 국민 대다수가 유가변동에 상관없이 절전, 절수 등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되어 있고 꾸준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다변화를 추진하는 점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점임.

헝가리

1. 헝가리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헝가리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2007. 01.	2007. 06.	2008. 01.	2008. 06.
가솔린	\$/L	1.281	1.538	1.674	2.009
디젤	\$/L	1.248	1.390	1.700	2.139
LPG	\$/L	N/A	0.869	1.035	1.200
전기	\$/kWH	0.192	0.211	0.248	0.248

자료 : Ministry of Transport, Telecommunication and Energy (APEH)

나. 헝가리 에너지 자급률

- 2006년 기준 헝가리의 에너지 자급률은 76.25%.
 - 1990년대부터 에너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생산은 지속적으로 감소된 반면 에너지 수입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 유가상승에 따른 헝가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헝가리는 '07년 1월 EU 집행위의 "energy package" 도입 전까지 green/white 법령을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을 통제
 - 현재 Energy package에 명시된 에너지 정책의 3가지 기준인 공급안전, 경쟁력 강화 및 환경유지 원칙 따라 정책을 수행
- 한편, 현재 천연가스 연간 소비량의 75%까지 육박한 러시아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의 대표적 에너지자원 확보 프로젝트인 "Nabucco Project"에 헝가리의 국영 석유회사 MOL가 참여하고 있음

- 동 프로젝트는 독일 전력회사인 RWE, 오스트리아 OMV 등 주요국의 7개 회사가 참여하는 50억유로가 소요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사업으로 중동에서 서유럽까지 총 3300Km의 파이프 라인 건설사업으로 2009~2012년 기간 중 추진예정

나. 사회적 측면

- 지난 6월초 정부차원에서 EU 집행위에 역내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최저 유류세 인하 건의
- 7월부터 수입원가 상승에 따라 가정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9.9% 인상했으나 정부 재정적자 축소 기조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이 이미 3년째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특별한 반응은 없는 상태임
- 국민들이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시내 교통상황이 한산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헝가리 경제성장의 변화

- 헝가리 정부는 EU 내에서 가장 낮은 GDP 성장률과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노력 중
 - 중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인 5%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6.3%로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8.5%까지 상향조정
- 전문가들은 헝가리 정부가 그 간 정부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고 연금, 교육, 건강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고유가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당초 목표한 거시경제 지표관리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

나. 기업의 변화

- 헝가리 기업의 투자 축소
 - 금년 1분기 기업투자 증가율이 -4.8%로 나타나 올 경제성장률 목표인 2%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된바 있음.
 - 이는 고유가, 인플레이 충격이 시장에 반영됨으로써 가계소비 축소, 기업투자 축소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현지투자 우리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임금상승 문제 대두
 -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공공부문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율이 현실성을 벗어났다고 판단 올 연말 현금 보조를 실시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임금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내년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진출기업에게도 영향이 과급될 것으로 보임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지난 1분기 헝가리 수입규모는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
 - 에너지 관련 제품군의 경우 수입단가 상승에 따라 최고 81%까지 증가

4. 시사점

- 헝가리 고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강력한 긴축재정 정책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 건강보험, 연금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수반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1. 싱가포르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싱가포르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S\$/ℓ	1.081	1.310	1.466	1.671
경유	US\$/ℓ	0.836	0.805	1.074	1.377
LPG	US\$/kwh	0.109	0.109	0.127	0.141
전기(가정용)	US\$/kwh	0.1302	0.1232	0.1595	0.1746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1.5379, '07.6월: 1.5326, '08.1월: 1.4184, '08.6월 1.3676)

자료원 : 실제소매판매가,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 종합

나.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자급율 : 0%

- 싱가포르는 정유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으나, 원유 및 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

2. 유가상승에 따른 싱가포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강화

- 2004년 중동 주요국에 통상산업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파견, 이란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싱가포르-요르단 FTA를 강화하고,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등 GCC국가들과의 FTA를 개시하였음.

- SPC(Singapore Petroleum Company)는 인도네시아 Sampang psc의 36%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Sampang내 파트너와 함께 유전탐사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음. SPC는 인도네시아내 또 다른 오일 및 가스 생산 Kapap PSC에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SPC는 2005년중 캄보디아 정부와 협정을 체결, SPC사가 2006년말부터 3년간 Gulf of Thailand에서 협력사와 석유탐사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성장률 둔화 : ('07) 7.5% → ('08) 5.5%
 -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2.1% → ('08)약 6.0%
-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
 - 상기 200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최근 싱가포르 중앙은행(MAS)가 경제분석가 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예측된 것임.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7.10일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9%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집계하였음.

나. 기업의 변화

- 유가상승에 따른 구매패턴의 변화
 - 차량 및 유류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촉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일반 차종 대비 더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어 현재까지도 차량구매자들의 적극적인 구매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LPG 차량의 경우 영업용 택시를 위주로 보급되고 있으나, LPG충전소가 싱가포르내 1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어 일반 차량구매자들은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음.
 - 열대국가로서 연중 에어컨 가동이 필요한 싱가포르는 가정과 사무실에서 모두 전력수요가 큰 편이며, 관리비 중 전력사용료가 가장 높은 비용항목의 하나가 되고 있음. 이를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형 모델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은 현재 약 310개사에 달하며, 유가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음.

다. 수입시장의 변화

- 2007년 수입증가율 둔화
 -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 전세계의 중계무역 기지로 활용되는 싱가포르의 연간 총수입의 40%가 재수출 물량이며, 이에 따라 국내외 경기에 모두 영향을 받는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싱가포르의 수입은 최근 수년간 높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2006년 13.7%, 2007년 4.4%의 증가를 보였으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경기둔화의 우려 가시화

4. 시사점

- 자원개발협력 강화
 - 유전개발 등 적극적인 자원협력을 지속 유지, 강화를 통하여 중동, 동남아의 주요 산유국과 공동유전, 가스전 개발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태 국

1. 태국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태국 에너지 가격 인상 현황 (소비자 가격기준)

구분	단위	'07. 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Gasohol Octane 95 (Gasohol 95-E10)	Baht/ ℓ	24.12	26.71	29.17	36.80
Gasohol Octane 95 (Gasohol 95-E20)	Baht/ ℓ	N/A	N/A	27.47	35.17
Gasohol Octane 91 (Gasohol 91-E10)	Baht/ ℓ	N/A	26.40	28.37	35.97
Benzene Octane 91 (ULG 95 RON)	Baht/ ℓ	25.71	30.01	33.17	40.10
Benzene Octane 95 (ULG 95 RON)	Baht/ ℓ	24.91	29.21	31.88	40.40
High Speed Diesel	Baht/ ℓ	22.76	25.34	29.43	41.02
High Speed Diesel B5	Baht/ ℓ	22.26	24.64	28.44	40.25
LPG	Baht/ ℓ	9.09	9.09	9.73	9.79

주 : 각 기간별 US 달러당 평균 환율

('07.1월 : 35.97바트, '07.6월 : 34.58바트, '08.1월 : 33.18바트, '08.6월 : 33.20바트)

자료원 : 에너지 정책 및 계획 사무소, 에너지청

나. 태국 에너지 자급률 (2007년 말 기준)

- 태국의 에너지 자급률 : 62%

2. 유가상승에 따른 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태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 해외 자원 및 에너지 개발에의 참여
 - 에너지 공급 서비스 개선
 -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연구 노력
 - 에너지 효율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1 조치 발표 ('08.5월)
 - 연간 에너지 소비를 10% 감소, 연간 1조바트를 절약
 - 가정 내 에너지 절약제품 사용확산, 에너지 라벨 제도 도입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절약운동이 주요 내용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물가상승
 -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5월 보다 1.2% 상승한 127.7이고, 물가 상승률은 8.9%
 - 식료품 11.4% 상승, 운송 및 통신 16.8% 상승

나. 기업의 변화

- 물류비용 상승
 - 소량주문은 배달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은 현지 물가 및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

다. 수입시장의 변화

- 가격상승에 따라 에너지 등 수입규모 증가

4. 시사점

- 대체에너지사업 적극 추진 및 해외투자진출 지원 강화
 -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마련 및 사업추진 필요
 -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 지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생산구조의 본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관련 제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양방향 시스템 구축 및 가동 필요
- 기업차원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동
 - 유가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기업경영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닥치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상황별 환경 예측을 통한 사전 경영전략 수립 및 실천을 통한 문제 해결 필요

말레이시아

1.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말레이시아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2007년 1월	2007년 6월	2008년 1월	2008년 6월
휘발유	RM/liter	1.92	1.92	1.92	2.70
LPG	RM/liter	0.68	0.68	0.68	0.68
전기(가정용)	200kWh 미만	kWh당 0.21링깃	kWh당 0.21링깃	kWh당 0.218링깃	kWh당 0.218링깃
	200kWh 이상 500kWh 미만	kWh당 0.28링깃	kWh당 0.28링깃	kWh당 0.28링깃	kWh당 0.345 링깃 (7월부터 적용)
경유	가격은 Petronas(석유가스취급 공기업)가 제공한 시세에 따름.				

주 : 미 달러대비 환율

(07년1월:3.50달러, 07년6월:3.45달러, 08년1월:3.24달러, 08년6월:3.26달러)

나. 말레이시아 에너지 자급율(2007년말 기준)

- 에너지 자급율은 100%이지만, 높은 등급의 원유를 수출하는 관계로 공급 부족분은 저급 원유를 수입하여 충당

2.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정책

- 저소득층 지원 정책
 - 2000cc이하 자동차, 2500cc이하 트럭과 지프차는 매년 625링깃을, 250cc이하 오토바이는 매년 150링깃을 현금으로 환급
 - 2000cc이상 자동차는 매년 200링깃, 250cc이상 오토바이는 매년 50링깃의 도로세를 환급
 - 어업권을 가진 어민이나 배를 운전하는 사람은 매달 200링깃 환급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연초 중앙은행은 2008년 목표 성장률을 6.0~6.5%로 정한바 있으나, 지난 7월 2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목표 성장률을 5.0~6.0%로 하향조정함.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휘발유와 디젤가격의 상승에 기인

나. 기업의 변화

- 최근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운송업체들이 연비가 좋은 트럭으로 교체 중
 - 일반 운전자들도 고가의 휘발유 대신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CNG (Compressed Natural Gas) 탱크를 장착하고 있어 CNG 탱크 수요 급증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운송비와 합성수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유가상승 이후, 근로자의 통근비용 인상 요구가 나타나고 있음.

4. 시사점

- 시장확대 기회로 이용해 볼 수 있음.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출시하면, 현지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의 아성에 도전해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태양전지 생산 프로젝트를 유치할만한 인프라 및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말레이시아에서 개발 중인 태양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 함.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인도네시아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Rp/ℓ	4,500	4,500	4,500	6,000
경유	Rp/ℓ	4,300	4,300	4,300	5,500
LPG	Rp/kg	4,250	4,250	4,250	4,250
전기(가정용)	Rp/kwh	500	500	500	500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9,066.5, '07.6월: 8,983.6, '08.1월: 9,406.3, '08.6월: 9,295.7)

자료원 : 인도네시아 국영전력(PLN) 및 국영석유(PERTAMINA)

나. 인도네시아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석유 : 약 90%
- 가스 : 자급률 100%라 할 수 있으나 LPG는 해외에서 수입
- 석탄 : 자급률 100% (세계 1위 유연탄 수출국)

2. 유가상승에 따른 주재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석유 중심의 발전을 석탄, 가스, 지열 발전 등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적극 검토
- 또한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석유, 가스 개발을 위한 외국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대체에너지로 새로 부상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도 정부차원의 지원 추진

나. 사회적 측면

- 보조금 축소
 - 5월 23일부로 석유보조금 축소를 통해 28.7%의 유가인상을 단행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고 유류소비를 억제시키고 있음.
 - 민간부문에서도 가정용 취사연료였던 등유(케로신)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LPG 용기를 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석유소비 축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음.
- 유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스마트카드'제를 도입해 1인당 사용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발리섬에서 시험가동중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이미 6월 물가상승률이 11%를 넘어서면서 연초의 6%대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무너뜨렸고, 이에 따라 6%대 성장전망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음.

나. 기업의 변화

- 기업들은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교통비 증가에 따른 보조금성격의 급여 부담이 늘어나는 등 비용증가
-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주로 원부자재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업종이 대부분이어서 타격이 큰 상황임.

4.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임에도 대체에너지 발전을 적극 모색 중
 - 원자력이나 풍력, 태양열 등 한국이 앞서가는 대체에너지 기술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기술교류 등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베트남

1. 베트남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베트남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S\$/ℓ	0.637	0.732	0.808	0.887
경유	US\$/ℓ	0.534	0.534	0.637	0.853
LPG	US\$/13kg Bottle	12.217	13.587	17.077	18.774
전기(가정용)	US\$/kwh	0.038-0.122	0.038-0.122	0.038-0.122	0.037-0.122

주1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16,127, '07.6월:16,119, '08.1월:16,104, '08.6월:16,353)

주2 : 전기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다름.

자료원 : State Bank of Vietnam

나. 베트남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석유

- 베트남의 경우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유공장이 없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
- '07년 기준 석유제품 수입액은 77억 달러(1,285만 톤) 규모이며 그중 휘발유 수입액은 22억 6천만 달러(330만톤) 규모임.
- 현재 건설중인 정유공장이 2009년 2월 예정대로 가동될 경우 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LPG

- 2007년말 기준 LPG 자급률은 40% 수준이나 자원 고갈로 자급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2. 유가상승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베트남 연안 원유 및 개스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 베트남 원유 생산량이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원유 탐사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금년 중 5~10건의 프로젝트에 서명 예정)
- 정유시설 확대
 - 내년 2월 가동 예정인 정유공장 이외에도 2개의 정유공장 추가 건설을 추진 중
- 인근국과의 협력 강화
 - 중국으로부터 전기 구입
 -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동 발전소들로부터 전기 수입 계획
- 대체에너지 개발
 -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2020년까지 2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예정(각 발전소 생산능력은 2천MW)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2007년말 기준 베트남 석유공사는 쿠바, 페루, 말레이시아, 알제리 등과 13건의 원유 및 가스 탐사 계약을 체결.(금년중 2건을 더 체결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음.)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절약 관련 신규 조치 도입
 - 전력 송출 및 분배기 U/G를 통한 전력 손실 감축

- 주요 제조업체 등 전력 대량 소비자들과 전력 소비 감축 협약 체결(하노이의 경우 324개 전력 소비주체들과 2% 에너지 절약 협약 체결)
- 지역별 순회 정전 실시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전기 제품을 사용토록 국민들에게 지속 홍보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베트남 경제성장의 변화

- 성장률 둔화, 물가상승
 - 작년말 설정한 2008년 경제성장률은 8.5~9%였으나, 지난 상반기 성장률은 6.5%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말 대비 20.3%에 달함.
- 전문가들은 2008년 베트남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 및 대외 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

나. 기업의 변화

- 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으로 어려움 가중
 - 아울러 현지 고용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구인난에도 직면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수입규모 축소 : 5월 수입규모가 3, 4월 대비 감소
 - 특히, 비료, 철강, 자동차, 밀가루, 석유제품, 종이, 오토바이 등의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수입가격 상승으로 금년 1~5월간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9.82% 증가

4. 시사점

- 자원 생산국임에도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원유 및 가스 탐사 등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방안 확보
 -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풍력 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

인도

1. 인도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인도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Rs/ℓ	46.5	44.5	45.2	50.52
경유	Rs/ℓ	31.9	30.25	31.1	37.1
LPG	Rs/kg	27.16	26.44	31.00	36.52
전기 (가정용)	Rs /Kw	200Kw까지는 2.4루피, 200kw ~ 400Kw는 3.9루피, 400루피 이상은 4.6루피			200Kw까지는 2.45루피, 200kw ~ 400Kw는 3.95루피, 400루피 이상은 4.65루피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44.33루피, '07.6월: 40.77루피, '08.1월: 39.37루피, '08.6월: 42.82루피)

자료원 : Bharat Petroleum(휘발유, 경유, 델리기준), LPG(Indian Oil, 델리기준),
전기(BSES, 델리기준), 환율(인도중앙은행)

나. 인도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석유(원유) : 약 20%
- 가스 : 약 50%
- 석탄 : 100%
 - 인도는 세계적인 석탄부국으로, 에너지의 약66%를 화력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이 화력생산 중 80%가 석탄화력발전임. 그러나 전체 에너지는 소비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2. 유가상승에 따른 인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

- 고유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
 - 미-인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여 원자력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란-인도 가스 파이프라인 계약이 체결될 예정
 - 대체에너지 생산에 5%가량이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를 강화할 예정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해외유전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인 OVL이 대표적인 개발기관임. (18개국에 걸쳐 38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 또한 캐나다 오일샌드에 올해 20억불에서 25억불을 투자 계획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인도 경제성장의 변화

- 인도는 최근 3년 연속 9%대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08~'09 회계년의 경우 유가 상승 등으로 7%대 성장 예상
 -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도매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10%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리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루피화 절하(연초 1달러=39루피 → 현재 1달러=43루피)를 위한 조치 때문에 외환보유고도 줄어들고 있음.
 - 고유가는 인도의 무역적자규모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원유의 80%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정부의 휘발류/경유 등 연료 가격통제에 따라 국영 정유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 채권으로 보전해야 하는 상황임.

나. 기업의 변화

○ 구매 위축

- 자동차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인도 제1의 승용차 판매업체 마루띠수주키의 6월 판매실적은 작년 대비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유력 승용차업체인 TATA자동차의 6월 실적 역시 작년대비 2% 감소함. 특히 중대형 자동차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음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에도 피해 영향

- 특히 자동차 관련기업은 수요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음.
- 유가상승에 따라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애로사항임(물류비 상승에 따라 전체 생산비용이 3~5%상승하고 있음)
- 한편 원재료 공급기업들이 계속 공급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철강제품, 철근, 시멘트 등의 가격이 속속 인상되고 있어서 생산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경쟁구도와 가격에 민감한 소비성향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판매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4. 시사점

○ 장단기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

-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원 확보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며 원자력에너지의 사용확대 등을 추진 (OVL을 통한 아프리카, 중동 등의 유전개발)
- 또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크게 장려하고 있는데 이미 총 전력생산규모 중 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대중교통체제의 확충을 통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유가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책 도입

- 연료(휘발유, 경유)의 가격인상을 최소화하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루피화의 절하폭을 감소시켜 수입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음.

호 주

1. 호주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호주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ℓ	0.874	1.098	1.246	1.528
경유	U\$/ℓ	0.959	1.110	1.328	1.586
LPG	U\$/ℓ	0.408	0.449	0.630	0.642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1.2953, '07.6월: 1.1783, '08.1월: 1.1256, '08.6월:1.0461)

자료원 : Motor Mouth News, 호주중앙은행

나. 호주 에너지 자급률 (2005/2006 회계연도 기준)

- 호주는 석탄, LNG, LPG 등 주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순수출 국가(자급률 100% 이상)이나 원유 및 석유제품은 순수입 국가임.

2. 유가상승에 따른 호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 대체에너지 산업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Energy Future" 프로그램 운영
 - Renewable Energy Fund(A\$5억) : 대체에너지의 개발, 상업화 및 확산을 지원
 - Clean Business Fundn(A\$2.4억) :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및 수자원 절약 관련 프로젝트 지원
 - Energy Innovation Fund(A\$1.5억) : 에너지 연구 관련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

- 정유 산업 경쟁력 강화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 산업 능력 부족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Transport Fuel Policy" 프로그램 운영
 - 동 프로그램은 정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구조조정 촉진, 공급안정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대체 연료 산업 부문 육성 정책도 포함하고 있음.
-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 2007년 1월부터 이른바 "Oilcode"라는 이름으로 휘발유 등 석유산업계에 대한 규제책을 시행하여 공급자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한편 가격 결정, 유통 과정 등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오고 있음.
- 해양 유전 개발 강화
 - 해양 유전에 대한 탐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Petroleum Geoscience" 프로그램 및 "Offshore Petrol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운영

나. 사회적 측면

- 유류에 대한 일반 소비세(General Sale Tax, GST) 인하 검토
- National Fuel Watch Scheme 시행 추진
 - 호주공정거래위원회(ACCC)는 서호주주(Western Australia)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Fuel Watch Scheme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동 정책은 석유제품공급사들이 매일 1회 향후 24시간의 휘발유, 디젤유, LPG 가스의 가격을 인터넷 상에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장 유리한 장소, 시기에 연료 구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일반 소비자들은 동 정책을 환영하고 있으나 석유업계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강도 높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호주 경제성장의 변화

- 호주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2분기 연속 둔화
 - 1.6%(07.1/4) → 0.9%(07.2/4) → 1.0%(07.3/4) → 0.7%(07.4/4) → 0.6%(08.1/4)
- '08. 2월 4.0%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실업률도 최근 상승추세
 - 4.4%(07.4) → 4.2%(07.9) → 4.0%(08.2) → 4.1%(08.3) → 4.2%(08.4)
- 주요 기관, 08년 호주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
 - IMF : 3.8%(07.10) → 3.2%(08.4)
 - OECD : 3.3%(07.5) → 2.7%(08.6)
 - Economic Intelligence Unit(EIU) : 3.3%(07.12) → 2.9%(08.6)
-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압력 지속
 - '08년 1분기 물가상승률 4.2%로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2.1%(07.2/4) → 2.9%(07.3/4) → 3.0%(07.4/4) → 4.2%(08.1/4)

나. 기업의 변화

- 휘발유 절약형 제품 생산 확대
 - 도요타 호주 공장은 2010년부터 연간 1만대(호주 자동차 연간 판매대수의 약 1%)의 하이브리드형 캠리(Camry)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며 동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 보조금은 7천만 호주달러에 달함.
- 운송비 절감 노력 강화
 -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비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 실시
 - 운송 주기를 늘리고 포장 단위를 확대하여 포장재 및 팔레트의 비중을 최소화
 - 운송 회사가 최적의 경로를 이용하고 있는지 공동 검토
 - 연료비에 대한 통합 계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차량 또는 운전자가 가장 비효율적인 연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 판매 시기에 다소 덜 민감한 제품에 대해 철도 운송 비중 증대
- 운송회사와 운송시간, 연료비용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계약 체결
- 항공사, 운항 경로 조정
 - 호주의 대표적 항공사인 콰타스, 버진블루는 수익률이 낮은 구간의 폐쇄, 직항 비율 축소 및 스톱오버 확대를 지속 추진 중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지진출 우리 기업은 대부분 수입 및 유통 기업으로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러나 호주가 자체 제조업 발달이 부진하여 우리 기업의 주력품목에 대한 수입수요가 국내조달 수요로 바뀔 여지는 적음.
 - 반면 자동차 기업(현대, 기아)들은 유가 상승 및 경제 성장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
 - 유가 상승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차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호주 자동차 시장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여서 소형차 부문만의 호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전체 수입에서 원유 및 석유 제품 비중 증가
 - 한편 전체 수입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년 12.2% 였으나 '08.1-4월 중에는 16.3%로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승용차 및 화물차, 컴퓨터류 및 휴대폰 등 여타 주요 수입품목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어 전체 수입 증가가 주로 원유 및 석유 부문에서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음.

4. 시사점

- 고유가 관련 호주의 전반적인 대응 태도는 단기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 보다는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개발 및 석유 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을 보면 특정 주체 및 활동에 대한 제한적 지원보다는 자금을 조성한 후 연구개발, 상용화, 판매 및 수용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도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유연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홍콩

1. 홍콩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홍콩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구분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금액	연초대비증감율
휘발유	HK\$/ℓ	12.98	14.08	14.51	16.98	17.02%
경유	HK\$/ℓ	8.36	8.76	9.96	11.76	18.07%
LPG	HK\$/ℓ	3.49	3.75	4.61	4.83	4.77%
전기(가정용)	kwh	0.862	0.862	0.862	0.862	-

주 : 1 US\$/HK\$ ('07.1월: 7.7771, '07.6월:7.8184, '08.1월:7.7984, '08.6월:7.7970)

자료원 : 홍콩신문종합, www.x-rate.com, 홍콩통계청

나. 홍콩 에너지 자급률 (2007년 말 기준)

- 홍콩은 석유(싱가폴, 정제유), 가스(중국)는 100% 수입하고 있으며, 전기는 주로 석탄을 이용하여 자가 발전하고 있음.

2. 유가상승에 따른 홍콩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홍콩 정부는 20년 전부터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작은 공간에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태양열 에너지 및 풍력 에너지, 쓰레기 에너지 개발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CLP파워(홍콩 제2 에너지 공급업체)는 '06년부터 풍력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 홍콩-선전 태양에너지 연구
 - 홍콩정부와 중국 선전시 정부는 DuPont사와 협력하여 태양열 에너지를 연구하는 “Shenzhen Hong Kong Innovation Circle” 프로젝트를 런칭하였음. (2008.5)
- 주강삼각주 소재 홍콩기업 에너지 효율 극대화 장려
 - 홍콩정부는 홍콩환경부, 광동성의 경제무역위원회, 홍콩 생산성위원회 및 각종 산업계의 협력 하에 주강 삼각주지역에 위치한 홍콩기업들이 배기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나. 사회적 측면

- 유로 V 디젤유 세금 폐지 ('08.6월말)
 - 그러나 1리터 당 0.56홍콩달러가 부과되던 유로 V 디젤유 세금 감면은 상승한 유가에 비해 미미하며, 서민들은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며 가솔린 세금 감면을 요청하고 있음.
- 에너지 효율 라벨 의무화
 - '08년 5월, 홍콩정부는 에너지효율 라벨 의무화 시행을 결정하였음. 가정 전력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에어컨, 냉장고, 형광등의 3가지 상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홍콩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50 GWh의 전력 절약, ▲전기세 1억3500만 홍콩 달러 감소, ▲이산화탄소 배출량 10만 5,000톤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냉방온도 제한
 - 홍콩 정부는 '05년부터 'Action Blue Sky'라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에어컨 사용 자제에 초점을 맞추고, 실내 온도를 25.5에 맞추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사회적 인식 확대 - '야간 조명 자제', '에어컨 없는 날', '홍콩 정부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이용' 등

- ① '08년 6월 21일 HSBC, IFC, 스탠다드차터스 등 홍콩의 랜드마크 건물 100여개가 참여하여, 옥외 네온사인을 1시간 동안(8시~9시까지) 소등하는 캠페인을 전개함.
- ② 홍콩의 303개 초중등학교, 2만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여 에어컨 없는 날을 시행, 하루 동안 19만500와트 약 19만 500 홍콩달러의 전기세를 절약하였음.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됨.
- ③ 홍콩정부 건물에 태양열 에너지 이용
 - 홍콩 정부 건물들은 유리로 된 건물들이 많고, 비교적 다른 건물에 가리지 않고 트여 있어 태양열 에너지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점을 착안, 에너지 담당국인 기전공정서(香港機電工程署)에서 정부 건물에 집열판을 설치하였음.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홍콩 경제성장의 변화

- 고유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경제 성장 둔화
 - 연초 대부분의 경제 연구소에서는 2008년 홍콩 경제성장률을 4%대 후반으로 예측하였으나, 지난 1분기 7.1%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홍콩은 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91%를 차지하여 고유가의 직격탄은 피해가는 모습이나, 세계 중개무역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홍콩은 대외 경기에 매우 민감한 경제 구조로 세계 각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홍콩대학 아시아태평양경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 침체, 세계적인 경제 불황, 유가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홍콩의 하반기 경제성장은 다소 둔화되어 약 5.3% 로 예상하고 있음.
- 홍콩이 예상 밖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2008년 홍콩 내 소비지출액은 6.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나. 기업의 변화

○ 항공사

- 홍콩 최대 항공사 Cathay Pacific은 고유가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였음.(연료비는 운영비의 40%를 차지)
- 전년 대비 약 50%의 유가폭등으로 인해 Cathay Pacific의 '08년 1~4월의 연료비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하였으며, 5월 말 기준 이윤은 5.5%로 감소하였음.
- Cathay Pacific의 대책
 - 장거리 비행 가격인상
 - 유류할증료를 37% 인상하였으며, 미주노선의 수화물중량을 개인당 32kg에서 23kg로 축소하였음.
 - 고효율 항공기를 운행하고, 보잉747-200등 연료효율이 낮은 비행기를 교체할 계획임.

○ 물류 업체

- 유가가 100달러를 초과하면서 홍콩 물류기업들의 원가가 15%에서 20%상승까지 상승하였으며, 물류기업들간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

○ 대중교통

- 홍콩의 툰문-통청을 연결하던 페리가 유가상승으로 6월로 운행을 중단하였음.
- 외곽섬을 운행하는 페리 노선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최고 5.5%, 최고 23%까지 요금이 인상되었음.
- 가장 탑승자 수가 많은 침사추이-센트럴, 침사추이-완차이 구간의 페리요금도 현재 41% 인상을 신청한 상태임.
- 시내버스 요금 2~7% 인상

○ 홍콩 제조업, 제품 가격 상승

- 유류가격 상승으로 완구 및 의류 제품 가격은 전년대비 5~10% 상승

-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패턴 변화
 - 에너지 절감형 제품 우선 구매
 - 연중 인기상품인 에어컨과 건조형 세탁기에는 에너지효율을 강조한 마케팅이 두드러짐.
- 홍콩의 한국투자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홍콩 진출 한국기업의 90% 이상이 paper company로 고유가로 인한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음.

4. 시사점

- 상품의 에너지 효율 점점 중요
 - 홍콩 내 에너지효율 라벨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력소비가 적은 에너지 고효율 상품의 출시가 증가할 전망이다.
 - 대홍콩 수출 시 에너지 고효율 부분을 중점 고려하여 생산한다면 추가 수출 증가가 기대됨.
- 홍콩 정부의 고유가 대책
 - 서민 경제 안정 최우선 : 고유가에 따른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도 요금을 동결하였으며, 버스요금·가스요금·전기세 인상을 최소화하였음.
- 대체에너지 개발보다는 절약 초점
 - 홍콩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일찍이 노력해 왔으나 산업구조상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고, 에너지 공급은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어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Action Blue Sky와 같은 각종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

대 만

1. 대만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주재국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NT\$/ℓ	옥탄가 92 무연 : 25.45	옥탄가 92 무연 : 27.34	옥탄가 92 무연 : 29.83	옥탄가 92 무연 : 33.69
		옥탄가 95 무연 : 26.13	옥탄가 95 무연 : 28.01	옥탄가 95 무연 : 30.50	옥탄가 95 무연 : 34.37
		옥탄가 98 무연 : 27.61	옥탄가 98 무연 : 29.58	옥탄가 98 무연 : 32.09	옥탄가 98 무연 : 35.97
경유	NT\$/ℓ	22.32	24.73	27.37	31.76
LPG	NT\$/ℓ	14.84	16.01	15.68	17.86
전기(가정용)	NT\$/250 Kwh	-	-	하절기 : 613 하절기 외 : 569	하절기 : 632.8 하절기 외 : 586.6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32.768, '07.6월: 32.932, '08.1월: 32.368, '08.6월: 30.366)
 자료원 : 經濟部 能源局, 臺灣電力公司, 中央銀行

나. 대만 에너지 자급률 (2007년 말 기준)

(단위 : 천kl, %)

	총계		자급		수입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총계	146,237.48	100.00	2,495.30	1.17	143,742.18	98.29
석탄	47,004.65	32.14	0	0.00	47,004.65	32.14
석유	74,749.98	51.12	17.78	1.01	74,732.20	51.10
액화천연가스	11,935.40	8.16	0	0.00	11,935.40	8.16
천연가스	412.20	0.28	412.20	0.28	0	0.00
수력 발전	2,065.31	1.41	2,065.31	1.41	0	0.00
핵 발전	10,069.93	6.89	0	0.00	10,069.93	6.89

자료원 : 經濟部 能源局

2. 유가상승에 따른 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보조금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관련 설비 및 기술 투자 인센티브
 - 한 해 동안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관련 설비 투자금액이 60만 대만달러 이상일 경우 해당 설비 투자금액의 70% 및 기술 투자금액의 50%를 향후 5년간 법인세(營利事業所得稅)에서 공제
-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관련 설비 구매설치 대출
- 민간단체의 에너지절약 관련 회의 및 이벤트에 대한 보조금
 - 건당 보조금 지원규모는 이벤트에서 파생된 소득을 감산한 소요경비의 50%까지 지원

나. 사회적 측면

- 정부 및 교육기관의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
 -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방안 도입(예 : 냉방온도는 26~28℃, 3층 이하는 계단 이용, 여름철 복장 등)
- 여객버스 및 택시 연료비 보조
 - 실시기간 : 5월28일~12월 31일
 - 지원금액 : 29억 대만달러(택시 : 12억 대만달러, 여객버스 : 17억 대만달러)
 - 실시방안 : 전용 오일카드 사용 방식 채택
- 유류 화물세 인하
 - 세율인하기간 : 5월28일~11월27일(총 6개월)
- 휘발유 수입관세 인하 (10% → 5%)
 - 인하 세율 적용기간 : 6월 4일~12월 3일

- 농업용 기계 및 어선에 사용되는 유가보조금 지원
 - '08년도 총경비 : 7.2억 대만달러
 - 농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기존 영업세(부가가치세) 5%를 면제하고, 유가 인상폭의 50% 금액은 정부가 농민에 환급
 - 어선에 사용되는 경유 비중이 전체 어획단가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현행 보조금 지원비율 12.5%에서 14%로 상향조정
- 저소득 가구 보조금 지원
 - 총예산 : 58억 대만달러
 - 지원 내용
 - 기존의 저소득 가구 보조금 상향 조정
 - 국민의료보험료 지원
 - 특별 보조금 지급 확대
 - 장애인 복지버스 보조금 지원
 - 초중학생 점심 급식 무상 제공
- 공공기관 운행 차량 제한
 - 정부기관 고위직 관용차 구입 시 신차의 배기량 제한
 - 신차 및 사용 5년 이하의 공관의 경우 일률적으로 LPG차로 구입 또는 개조
 - '09년부터는 중소형 관용차용 연료 사용량을 현행 매월 대당 189ℓ에서 151ℓ로 축소할 예정임.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대만 경제성장의 변화

- '08년도 하반기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대만 경제성장률은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4.32%(行政院 主計處)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상승 대응방안 실행여부와 중국 관광객 유치 사업 발전 여부에 따라 '대만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하락 혹은 5%에 근접'하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소비 심리 위축
 - 금년 5월 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3.71% 상승하여 1996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나. 기업의 변화

- 기업의 에너지 절약 노력
 - 대만 유력 석유화학기업 포모사 플라스틱스사의 경우 사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위해 에너지 절약 전담팀을 조직한 바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침을 실시할 예정임.
 - 공장구역 내 6천 개 가로등을 전면 LED 등으로 교체하고, 사무실 내 전등도 전면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
 - 사내용품은 절수, 절전형 상품을 우선 구매
 - 야간용 전기는 주간에 집적된 태양광 에너지 이용

다. 수입시장의 변화

- 대한민국 수입규모 감소
 -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제품 단가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대만 자체 공급력이 충분한 점 등이 복합되어 금년 들어 우리나라의 대대만 수출이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

4. 시사점

- 대만 행정원은 조만간 에너지 절약 정책 강령 및 구체 행동 방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파악됨.
 - 서비스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촉구 : 호텔 및 백화점, 병원 등 주요 서비스업 간에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 협의 체결 추진(에너지 절약 목표는 3년 간 5% 이상)
 -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약 선도 :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 전담반을 성립하고 고효율 모터 개조를 추진하며 산업용 보일러 효율을 제고하여 에너지 절약 유도
 -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 제공 : 연료가 부담이 비교적 큰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별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 전담반을 성립하여 관련 기술 지문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
-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처는 아래와 같은 고유가 대처방안을 제시
 - 정부차원의 대책방안
 - 정책성 대출을 제공하여 기업의 원자재가 상승 부담 절감
 -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에 원자재 관련 정보 등 충분한 참고 자료를 제공
 - 중장기적으로는 신에너지 R&D를 강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체와 민간의 에너지 절약 의식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에너지 절약 관련 설비 및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장려
 - 업체차원의 대책방안
 - 대체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약 방안으로 생산단가 절감
 - 원자재 수입선의 다변화
 - 유가뿐만 아니라 원자재가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브라질

1. 브라질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브라질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R\$/ℓ	2.521	2.517	2.505	2.494
경유	R\$/ℓ	1.858	1.856	1.873	2.051
에탄올**	R\$/ℓ	1.586	1.513	1.496	1.456
LPG	R\$/13 kg	33.04	33.04	32.82	33.11
전기(가정용)	R\$/kWh	0.28172000	0.2817200	0.24606000	0.24606000

주 : 미 달러대비 평균환율('07.1월 31일 :US\$1=R\$2.12, '07.6월 30일 :US\$1=R\$1.93, '08.1월 31일 : US\$1=R\$1.76, '08.6월 30일: US\$1=R\$1.60

자료원 : ANP(Agecia Nacional do Petroleo, Gas Natural e Biocombustiveis, 국립석유·가스·대체연료국), Banco Central do Brasil(브라질 중앙은행), Eletropaulo

- 브라질은 석유산유국이며 대체에너지(에탄올) 생산 세계 2위국이기 때문에 유가 인상에 따른 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으며, 주유소 도매가격은 다소 상승했으나 소비자 가격에는 큰 변화 없음.
- 특히 에탄올을 차량 연료로 쓰고 있고 에탄올 및 가솔린을 겸용하여 운행할 수 있는 Flex차량이 대다수(신차 판매의 약85%)이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 인상에 일반 소비자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면 Flex 차량 이용자들은 에탄올을 차량연료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임.

나. 브라질 에너지 생산 추이 (2007년말 기준)

- 석유
 - 브라질의 석유매장량은 2007년 기준 144억 배럴로 세계 17위, 중남미 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임. 또한 브라질은 게다가 지난해 11월에는 50억~80억 배럴로 추정되는 매장량을 가진 새로운 대형 유전이 상파울루 인근의 산토스만 해저층에서 발견됨에 따라 브라질의 석유매장량은 현재의 144억 배럴에서 약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 경우 브라질은 세계 10대 산유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06년 4월 캄포스 유전 P-50 광구 개발을 계기로 역사적인 석유 자급자족을 선언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안정을 이루는데 성공함.

2. 유가상승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1, 2차 오일쇼크 이후 풍부한 사탕수수 자원을 바탕으로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
 - 에탄올 생산에 각종 세제 지원 및 정부 보조 등 혜택을 주는 동시에 '80년부터는 에탄올 전용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84년부터는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90%이상이 에탄올 차량임.
 - * 2003년에는 브라질 폭스바겐사에서 최초로 Gol모델을 대상으로 Flex차량(가솔린, 에탄올 이용연료 차량)을 개발해 현재 이러한 플렉스 차량이 신차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브라질은 이미 가솔린에 25%의 에탄올을 섞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외에도 버스 및 비행기에까지도 확대 움직임

나. 사회적 측면

- 지난 5월 브라질 석유공사는 정유소 석유가의 10% 인상, 디젤 가격은 15% 인상하였으나 일반 소비자 가격에까지 반영되지는 않았음. 이는 최근 브라질 경제 호황과 식량가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 우려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서 소비자 유가에 부가되는 세금 Cide(Contribuicao de Intervencao Sobre o Dominio Economico)의 세율을 낮췄기 때문.
- 에너지 절약정책
 - '91년부터 Procel 프로그램 운영
 - 송·배전 과정 중 기술 부족으로 인해 손실되는 에너지의 10% 감소

- 전기에너지 소비 절약 대폭 확대
 - 전기기구의 에너지 소비 효율 상승
-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전기제품에 씰(Seal)을 부착하는 제도 도입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브라질 경제성장의 변화

- 최근 몇 년간 브라질 경제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고 국내소비 및 생산이 크게 늘어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임.

나. 기업의 변화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들 중 고유가로 인한 해상선박운임의 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4. 시사점

- 자원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개발 주력
- 사탕수수를 활용한 에탄올 대체에너지를 상용화함으로써 이 분야 선진국 대열에 합류
 - 이는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최근 초고유가 시대에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음.

칠레

1. 칠레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칠레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CLP/ℓ	576.88	654.20	652.02	658.18
경유	CLP/ℓ	427.57	473.26	506.67	681.80
LPG	-	-	-	-	-
전기(가정용)	CLP/월	7,824.78	8,127.62	10,079.00	10,764.70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1USD=CLP 540.51 '07.6월: 1USD=CLP 526.71, '08.1월: 1USD=CLP 480.89, '08.6월: 1USD=CLP 493.61)

자료원 : 칠레 중앙은행, 칠레 통계청

나. 칠레 에너지 자급률 (2007년 말 기준)

- 칠레는 에너지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칠레 남부 제 VIII지역과 XII지역에서 소량의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음.
- 에너지 자원 생산량이 연간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 4.8%, 원유 1.46%, 가스 0.07%에 불과함.

2. 유가상승에 따른 칠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최근 칠레 정부 내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실현가능성은 없음.
- 현재 칠레 유류세 부과 시스템은 국제거래가의 변동에 따라 세율이 3단계로 탄력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세율 시스템이 현 고유가 상황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
- 칠레 정부는 당분간 유류세 인하 대신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유가안정자금을 보조금 형태로 투입하여 에너지자원의 국내거래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
- 민간부문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지 3대 임업기업인 Arauco, CMPC 및 Masisa社 CEO의 바이오디젤 프로젝트 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음.
- 바이오 디젤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정부차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칠레 석유공사 ENAP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나. 사회적 측면

- 소비자들의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칠레 경제성장의 변화

- '08년 경제성장 전망은 연초 5%대에서 4%대로 하향조정된 상태이며 향후 대외환경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임.
 - 유가상승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물가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음.
- 소비자 신뢰지수도 2001년 이후 최저수준인 33.4%를 기록, 향후 경기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

나.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 생필품 이외 지출을 기피하거나, 생필품 구입 시에도 대량구매를 통해 비용 절감을 최대화하는 경향

- 또한 제품 구매 시 유명브랜드 제품 보다는 유통업체의 독자브랜드 제품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대형 유통업체들은 매장에 독자브랜드 배치를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부각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
- 칠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대부분 생산보다는 마케팅 법인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아 생산부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높은 물가상승률로 칠레 중산층의 가용소득 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제품 판매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칠레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수입으로 충족됨에 따라 전체적인 수입시장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음.
 - 실제로 '08년 1~4월 디젤 및 기타 원자재 수입을 제외한 품목별 수입에서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44%이상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전자제품도 37%이상 증가
 - 또한 현지 건축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 각종 인프라 건설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건축 자재류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시사점

- 고질적인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풍력 및 바이오디젤 생산이 주요 논제가 되고 있음.
 - 특히 원자력발전의 경우 전문가들은 칠레의 만성적인 전력부족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이집트

1. 이집트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이집트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년1월	07년6월	08년1월	08년6월
휘발유					
Octane 80	Liter	0.90 L.E	0.90 L.E	0.90 L.E	0.90 L.E
Octane 90	Liter	1.00 L.E	1.10 L.E	1.30 L.E	1.75 L.E
Octane 92	Liter	1.40 L.E	1.40 L.E	1.40 L.E	1.85 L.E
Octane 95	Liter	1.75 L.E	1.75 L.E	1.75 L.E	2.75 L.E
경유	Liter	0.75 L.E	0.75 L.E	0.75 L.E	1.10 L.E
LPG	m ³	0.45 L.E	0.45 L.E	0.45 L.E	0.45 L.E
전기요금					
51~200 KWHr	KWHr	11.428 cents	11.428 cents	12 cents	12 cents
201~350 KWHr	KWHr	14.2857 cents	14.2857 cents	15 cents	15 cents
351~650 KWHr	KWHr	20.571 cents	20.571 cents	21.6 cents	21.6 cents
651~1000 KWHr	KWHr	29.619 cents	29.619 cents	31.1 cents	31.1 cents
> 1000 KWHr	KWHr	36.19 cents	36.19 cents	38 cents	38 cents

주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

('07.1월: 5.75L.E, '07.6월: 5.65L.E, '08.1월:5.44L.E, '08.6월 : 5.31 L.E)

자료원 : Egypt Oil, PEGESCO,

나. 이집트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원유

- '07년도 이집트의 1일 원유생산량은 약 68만 배럴로 '92년 수준보다(1일 90만 배럴)보다도 감소
- 이집트 서부 사막지역 및 심해에 대규모 유전 존재 가능성이 있지만 이집트 정부 및 다국적 개발 기업이 천연가스 자원 발굴에 치중하고 있어 이집트는 '08년을 기점으로 석유 소비량이 생산량 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천연가스

- 천연가스 산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산업으로 하루 액화 천연가스 (LNG)의 생산량은 70만 배럴로 세계에서 6번째의 액화천연가스 수출 국가로 자리잡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가스 생산량은 14%나 증가하였음.
- 이집트 천연가스 매장량은 1,970bcm으로 석유 생산량의 감소세와 달리 천연가스 생산은 국내외의 수요증가 및 신규 가스전의 개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2. 유가상승에 따른 이집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원자력 발전소 건설

-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는 최초로 2006년 9월에 15억 달러규모의 1,000메가와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발표

○ 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이집트는 화석 연료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 까지 3% 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홍해 주변의 풍부한 풍력자원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
- 풍력과 함께 연중 풍부한 태양열을 바탕으로 한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도 Kuremiat에 복합 발전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2년 까지 150MW 규모의 태양열 복합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

〈이집트 신 재생에너지 건립 계획〉

에너지원	확충설비 (MW)	연 발전량(M Kwh)	원료 절감(천톤/오일)
풍력	765	3,050	740
태양열 복합	150 (태양열30)	984	12

자료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2007~2012 plan

나. 사회적 측면

- 에너지 집약산업 자유무역지대 특혜 폐지 ('08.5월)
 - 이집트 자유무역지대 입주 기업 중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일부 기업에 대한 세제 면제 혜택이 '08년 5월5일부터 폐지
- 에너지 집약산업 석유가스 보조금 폐지 ('07.9월)
 -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 3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에너지 가격은 정부 보조금의 투입으로 경쟁국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하므로 에너지 집약 업종은 이미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이집트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 기존 에너지 산업 보조금은 저소득층의 생계형 지원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新예산 정책 수립 (저소득층 보조금 확대, 2008년 5월)
 - 이집트 정부는 지출 예산 확보를 위해 유류대 인상,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기호 식품은 담배 가격 인상, 차량 등록비 인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33억LE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임.
- 시민들의 반응
 - 저소득층 시민들은 정부의 신 예산 정책 수립으로 격화 양상을 보였던 시위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그동안 개혁의 과실이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불만이 다소 해소되었음.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이집트 경제성장의 변화

- 에너지 가격 및 식품가격 상승으로 4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6.4%로 폭등하였으며 올해 연 평균 물가상승률은 14%로 예상
 - 물가폭등에 따라 최소 7%로 예상되었던 경제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1%씩 재정적자를 줄여 2011년까지 재정적자 폭을 GDP의 3~4%로 낮추려는 정책은 정부 보조금 지출 증가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
 - 이집트 정부의 경우 금년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현지 경제기관의 경우 이보다 다소 낮은 6.8%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가스 매장량이 많은 이집트에서 수혜를 보고 있지만 원유 수입의 증가로 물가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고 식품가격 또한 크게 상승한 것이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음.

나. 기업의 변화

- 임금 상승 요구 촉발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임금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음.

다. 수입시장의 변화

- 가스 수출국인 이집트는 높은 에너지 가격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한국 제품 수요자인 고소득층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고 있어 대한 수입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또한, 낮은 에너지 가격의 혜택을 보는 이집트 주요 제조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설비의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입 수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은 아직 없음.

4. 시사점

-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부의 재분배
 - 이집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관련기업의 부를 저소득층에게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이집트 정부의 신예산 정책은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 보다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임.
- 에너지 관련 기업 보조금 축소와 에너지요금 구조 조정
 -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 가격상승의 위기를 그간 지적되어온 에너지 가격 구조 조정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이집트 유류 가격은 생산원가와 비슷할 정도로 낮는데 이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 때문임.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식품 및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남아공

1. 남아공 에너지 시장 현황

가. 2008년 남아공 에너지 가격인상 현황 (*소비자가격 기준)

	단위	'07.1월 평균	'07.6월 평균	'08.1월 평균	'08.6월 평균
휘발유	US\$/ℓ	0.78	1.01	1.07	1.26
경유	US\$/ℓ	0.74	0.87	1.04	1.36
LPG	US\$/kg	1.73	1.92	2.04	2.43
전기(가정용)	US cent/kwh	5.90	6.72	6.90	6.96

주1 : 각 기간별 미 달러당 평균환율('07.1월: 1\$=7.7138Rand, '07.6월: 1\$=7.1718Rand, '08.1월: 1\$=6.9871Rand, '08.6월: 1\$=7.9204Rand)

주2 : 휘발유 가격은 무연휘발유(Unleaded 95) 도시가격 기준

주3 : 경유 가격은 0.05% sulphur 경유 도시가격 기준

주4 : LPG는 소비자가격 통계가 없어, 요하네스버그 내 도매가격으로 대체

주5 : 남아공의 전기요금체계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 상기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이 과다하지 않은(설비용량 20A 기준) 도시 일반주택의 평균 전기요금임.

주6 : '07.6월 및 '08.1월의 현지화 기준 전기요금은 변동이 없었으나,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나옴.

자료원 : 남아공 광물에너지부, 남아공 중앙은행, 남아공 전력공사(Eskom), Easigas

나. 남아공 에너지 자급률 (2007년말 기준)

○ 석유 자급률 : 43.8%

- 2007년 남아공의 석유 소비량은 일일 509,000 배럴에 달했는데, 이중 223,000 배럴은 자체 원유생산 및 합성석유(Synthetic Fuel)를 통해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

※ 합성석유(Synthetic Fuel) : 석탄 및 가스에서 추출된 석유로서 현재 남아공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Sasol社 및 PetroSA社에서 생산하고 있음.

- 남아공의 원유(Crude Oil) 생산량은 일일 18,000 배럴로 미미하나, 합성석유(Synthetic Fuel) 생산량이 일일 205,000 배럴에 달해 국내 석유수요의 40% 이상을 자체 생산으로 충당

※ 남아공 내 원유매장량(2006년 말 기준) : 1,500만 배럴

- 가스 자급률 : 66.7%
 - '07년 남아공의 가스 소비량은 약 6bcm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4bcm은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2bcm은 수입
 - ※ 남아공 내 가스매장량(2006년 말 기준) : 50bcm
- 전력 자급률 : 100%
 -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력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전력생산국 (발전용량 : 약 38,000MW)

2. 유가상승에 따른 남아공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 에너지 수급 측면

- 대체에너지 개발 강화 : 합성석유 생산 확대, 신규원전 건설
 - 국내 석유소비 증가에 따라 합성석유(Synthetic Fuel) 생산 확대
 - 국내 석유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 도입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합성석유 생산량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
 - ※ 합성석유(Synthetic Fuel) 생산량 확대계획 : 205,000 b/d → 305,000 b/d
 - 최근 국내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 추진
-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강화
 - 중국, 카타르,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등에 투자진출 확대
 - ※ 중국 : 중국 서부 닐샤후이 및 산시성 지역에 2기의 합성석유(Synthetic Fuel) 생산 플랜트(생산용량 : 160,000 b/d)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진행 중
 - ※ 카타르 : 34,000 b/d 규모의 합성석유 생산 플랜트를 준공하여 조만간 생산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동 플랜트 생산용량 확대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도 진행 중
 - ※ 나이지리아 : 34,000 b/d 규모의 합성석유 생산 플랜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2009년 완공 예정
 - ※ 인도 : 80,000 b/d 규모의 합성석유 생산 플랜트 건설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진행 중

나. 사회적 측면

- 전력수요 관리 정책
 - 전력요금 인상, 과다전력 사용자에게 대한 벌금부과, 형광등 보급 확대, 스마트 미터기 보급 확대 등
- '08년 이후 유류가격이 급등하자 노동단체 등에서 정부의 유류가격인상을 맹비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거나 신차 구입을 자제
 - ※ 남아공 유류가격(휘발유 기준)은 현재(7월) 연초 대비 42% 상승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성장의 변화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생산자 물가 급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산업생산량 둔화
 - ※ 2008. 5월 기준 남아공 생산자물가 상승률 : 16.4%
- 생산자 물가와 함께 소비자 물가도 급등하면서 최근 민간소비 둔화현상 심화 : 2007년 남아공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7%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1분기에는 3.3%로 하락
 - ※ 2008. 5월 기준 남아공 소비자물가 상승률 : 10.9%
- 물가급등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데, 200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2.1%를 기록, 전 분기(5.3%) 대비 크게 하락
-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불안 심화로 인해 생산 및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올해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3%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 남아공 경제성장률 : 5.0%('06) → 5.1%('07) → 3.2%('08)

나. 기업의 변화

- 정부의 전력과다 사용자에 대한 벌금부과 정책에 따라 전력사용 자제 및 전력소비 효율성이 높은 제품 구매 확대
 - 사무실 전원시스템 교체²⁾, 백열등 사용자제 등
 -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체는 폐열발전(Cogeneration)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력요금 절감 및 전력사용 효율성 향상
- 현지진출 우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현지진출 우리기업은 대부분 판매 법인이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압박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현지진출 판매 법인들은 주재국 물가급등에 따른 민간소비둔화, 남아공 란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가중 등에 따라 매출액 및 영업이익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 수입시장의 변화

- 유가급등에 따라 원유도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 확대
 - 2008년 1분기 주재국 무역수지 적자액은 76.9억불로 전분기 대비 130% 급증하면서 적자규모가 GDP의 2.6%까지 확대
 -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경상수지도 악화되고 있는데, 2008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액은 243.9억불을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9.0%까지 확대
 - ※ 상기 경상수지 적자규모(GDP 대비 9.0%)는 지난 1982년 1분기 이후 최대 규모

2) 남아공 내 사무실은 통상 1개 사무실 당 전원 on/off 스위치가 하나 밖에 없어 전력낭비가 심한 편이었음. 이에 따라 사무실 각 섹터별로 전원 on/off 스위치를 여러 개 설치하는 사무실이 늘어나고 있음.

4. 시사점

- 남아공 합성석유(Synthetic Fuel) 기술도입을 위한 에너지외교 강화 필요
 -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남아공 Sasol社가 보유하고 있는 합성석유 생산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 ※ Sasol社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불 이상이 경우에는 액화석유 생산이 일반 원유생산에 비해 경제적
 - 우리나라로서는 고착화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를 대비, 석유자원 확보차원에서 남아공과 합성석유 생산 기술 협력 필요

III. 시사점

- 사상 유례없는 초고유가 현상은 세계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음.
 -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들도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 및 둔화에 직면
 - 유가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이 경제에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생산비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 특히, 에너지 수입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수지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면서 각국은 에너지 수입안정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에너지 수입 안정화를 위한 각국의 정책으로는 자원보유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강화, 해외 자원확보 노력 등임.
 - 중국, 인도 등 고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 국가들은 다양한 에너지 수입원 확보를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관계 강화에 역점
 - 또한 선·개도국을 막론하고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추진 중
 -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정부 및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음.
 -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사업의 민영화 이후 관련 기업들 차원에서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 특히, 베트남, 브라질, 이집트 등 자원 생산국들도 향후 자원고갈 및 국내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적임.
-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 활발하게 추진 중
 - 미국, 일본, 독일, 브라질 등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대체에너지 개발을 꾸준히 추진

- 대체에너지 개발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장기 플랜으로서 구미 선진국들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밝혀짐.
- 이들 국가들은 이미 대체에너지의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고유가 시대 자원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과거 환경파괴를 이유로 건설이 중단되는 추세에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대체에너지로서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향후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높여 나갈 계획
 - 체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 중임.

□ 기업들은 고유가로 물류비, 생산비 상승의 어려움에 직면

- 항공,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상승 압박, 판매부진 등으로 고전
-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이전했던 일부 미국 기업들은 주력 북미시장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물류비 부담 때문에 유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각국 소비자들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를 최대한 억제

- 대량 구매를 통한 가격인하 효과, 고급 브랜드 제품 구입 자제 움직임 확산
 - 아울러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판매 증가
- 그러나 긴축 소비 트렌드에 따른 수혜업종도 출현
 -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대형 승용차 및 SUV 차종의 판매가 부진한 대신 소형차 구매가 두드러져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 확대

□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생활영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에도 많은 노력 중

- 휘발유 및 경유, 전기, LPG 등이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상승
- 각국은 보조금 지급, 가격통제 및 조절, 유류세 인하 등 세계 정책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

- 유가급등 및 그에 따른 세계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유지하여 국가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였다는 점임.
 -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 개도국임에도 대체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한 브라질 등은 70년대 이후 관련 프로젝트를 부침없이 추진해 온 사례임.
 - 비상 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단기적 처방을 내릴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일수록 일반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오일쇼크 이후,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에너지 구조조정에 성공하여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국가로 자리매김.
 - 서유럽 등 세계 최고의 부국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제품 구매,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자제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BR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5
08-017	주요국의 서비스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2008.6
08-018	세계 섬유시장변화와 우리 해외생산전략	2008.6
08-019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2008.6
08-020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8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8.6
08-021	중, 하이테크 기술기업 우대혜택 변화와 전망	2008.6
08-022	대중국투자 뉴 트렌드와 시사점	2008.6
08-023	중동 주요국의 제조업 육성정책 및 우리의 진출전략	2008.6
08-024	떠오르는 마그레브 시장, 이렇게 공략하라	2008.6
08-025	베이징올림픽의 중국 소비경제 효과	2008.6
08-026	초고유가 시대 :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 절약상품 동향	2008.7
08-027	아프리카 이동통신시장 빅뱅	2008.7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유증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작성자

통상전략팀	양은영 차장	방콕무역관	이성훈 과장
뉴욕무역관	김문영 차장	궤라룸푸르무역관	김현호 과장
베이징무역관	김명신 과장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과장
도쿄무역관	홍상영 차장	호치민무역관	김동현 과장
토론토무역관	오영택	뉴델리무역관	박민준 과장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유석천 과장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과장
파리무역관	김영호	홍콩무역관	박은균 과장
런던무역관	박윤홍	타이페이무역관	유기자
암스테르담무역관	이종섭 차장	상파울루무역관	지윤정 과장
프라하무역관	김병호 과장	산티아고무역관	성기주 과장
바르샤바무역관	신재현 과장	카이로무역관	권세영 차장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과장	요하네스버그무역관	고일훈 과장
싱가포르무역관	권오룡 차장		

Global Business Report 08-028

유가상승에 따른 주요국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책

발행인 | 흥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7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